

수입차 전문 수리
블리카 대표 박형수
 M. 010-8998-1048 H. 063-244-1048
 F. 063-244-1043 전북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기 943-9

공감뉴스 전북을 세계로

전북타임스

The JeonBuk Times

조기문법무사
 해솔학행정사
 법무사 / 행정사 조 기 문
 (우)54859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로 55, 8층 805호(만성동, 오케이타워11)
 Mobile: 010-2053-8741 Tel: 063-223-8741
 Fax: 063-223-8742 E-mail: jokimoon@naver.com

대표전화 (063)282-9601
 인터넷 jeonbuktimes.co.kr

2025년 5월 9일(금) 제 3090호

“정부, 제7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 전북 지정해야”

국주영은 의원 대표발의
 “전북 자산관리 특화 지역 로드맵·지원계획 마련” 촉구



국주영은 의원

것이다. 먼저, 국 의원은 “전북자치도는 국민연금공단과 기금운용 본부가 위치하고 있어 자산관리 부분에 특화된 지역”이라며 “향후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한국투자공사 및 자산운용 관련 기관을 유치한다면 자산관리 부분에서 어느 국제 금융도시 못지않은 경쟁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국주영은 의원(전주12)이 제4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북특별자치도 금융중심지 지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국 의원에 따르면 최근 수도권외의 경제력 집중 정도가 갈수록 심화하고 있어 정부는 2007년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2009년 1월 서울과 부산을 금융중심지로 지정했다. 그러나 2025년 서울과 부산은 국제 금융센터지수(Global Financial Center Index: GFCI) 평가에서 각각 10위와 24위를 기록했고, 서울은 아시아 지역에서 홍콩, 싱가포르, 상하이, 선전에 이어 5번째를 기록하고 있다는 게 국 의원의 설명이다.

이어 국 의원은 “최근 자본시장연구원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금융중심지 정책의 한계로 첫째 자산관리 부분의 금융중심지 경쟁력 성과 부재, 둘째 자본시장의 선진화와 국제화를 위한 정책 노력 미비, 셋째, 디지털 금융중심지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국 의원은 “지역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금융산업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전북특별자치도를 금융중심지로 지정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선

“전북특별자치도 금융중심지 지정은 이를 수 있으며, 외국계 금융회사 집적 촉진을 위한 새로운 경영환경 등을 구축한다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전북자치도는 금융데이터 기반 핀테크 산업 중심의 디지털 금융중심지가 될 수 있으며,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계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1조에 따른 핀테크 육성지구 지정 및 지원 사업 확대를 예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주영은 의원은 “정부는 제7차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에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에 관한 구체적인 로드맵과 지원계획을 마련하고, 우리 지역과 전 도민의 오랜 열망인 ‘전북특별자치도 금융중심지 지정’ 절차를 조속히 착수해야 한다”며 재차 강조했다. /정재근 기자



트랙터 로타리 논에
 왜가리·백로 먹이 전경

8일 정읍시 감곡면 한 마을에서 농부가 트랙터로 벼 모내기 위한 로타리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50~60마리의 백로와 왜가리가 때로 물러와 먹잇감을 노리고 있다. 여름철새로서 긴 다리를 가지고 있는 백로와 왜가리는 함께 집단으로 나무에 동지를 짓고 번식한다. <사진=전북타임스>

임실군 기능성식품지원센터 지도·감독 문제점 심각

행정 당국 관리 부재
 지역 농산물 소비 흔적 없어

임실군 기능성식품지원센터가 설립 목적인 ‘지역농산물을 기반으로 한 식품개발’과 동떨어진 채 운영을 해 온 것으로 나타나 형세상비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여기에는 행정당국의 관리 소홀도 큰 몫을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나며 무사안일의 행정이 도마위에 올랐다. 기능성식품지원센터(센터)는 임실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기반으로 한 기능성식품개발 및 산업을 목표로

2020년에 45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개소했다.

당초 센터는 기능성 식품 연구개발, 생산기술 지원, 관련 산업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임실군이 전국적인 기능성 식품 중심지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이를 통해 지역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지역민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을 목표로 설립됐다.

그러나 2020년 개소 후 3년간 센터를 임대·운영해 온 업체에서 임실지역 농 특산품을 원재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대두되고 있다. 더욱이 센터를 관리·감독하고 있는 임실군은 지역농

산물 소비를 촉진해 농가소득에 보탬이 되도록 해야 하지만 임실군에서는 지역 농산물 소비에 대한 자료 자체가 없는 상태로 관리·감독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그간 임대업체의 임실지역 농산물 소비 현황을 묻고 자료가 있는지 묻는 취재 질문에 “보유하고 있는 자료는 없다”고 답변한 후 “임대업체에서 제품을 생산할 때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없을 경우 계약재배나 위탁재배를 통해 지역 농산물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황당한 답변을 내 놓았다.

애초 지역농산물 소비와 지역경제 활

성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센터를 임대업체 입맛에 맞춰 운영해도 된다는 취지로 들리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임실군 소재 농업회사 법인 A대표는 “지역 특산물을 활용해 기능성 식품을 개발 하고 임실군의 전국적인 기능성 식품의 중심지를 만들어 지역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센터를 개소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지역농산물을 사용하지 않으면 군에서는 45억여 원의 세금을 들여 임대 사업을 했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며 안이한 행정을 비난했다.

/임실=한병열·최준호 기자

새만금, 첨단 도시교통 선도 모델된다

현대차와 스마트모빌리티맞선
 자율주행·UAM·수소·AI융합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 이하 새만금청)은 새만금이 스마트 모빌리티와 인공지능(AI) 기술이 융합된 미래도시 혁신의 테스트베드이자 선도 도시로 본격적인 도약에 나섰다 8일 밝혔다.

새만금청은 오는 12일 ‘파트너십 데이(협력의 날)’ 행사를 통해 현대차그룹과 업무협약(MOU)을 체결, 스마트 모빌리티 도시 구현 등을 위한 민관협력체계를 공식화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익산역 및 인근 사·군과의 연계에 위한 새로운 교통수단, 내부 연결 수요응답형 교통(DRT), 자율주행차 등 특화된 스마트 이동수단 도입이 적극 검토된다.

수변공간의 장점을 극대화해 스마트 수변도시의 중심 수로폭을 기존 15m에서 30m로 확대, 도시 내 수상교통망을 구축, UAM 등 신(新) 모빌리티와 연계하는 육·해·공 환승센터를 국내 최초로 구상한다.

탄소중립형 미래도시 구현 실증을 위해 약 30세대의 단독주택을 리빙랩 시범단지로 지정한다. /김영태 기자

전북 상장법인 전년비 1개 증가, 전국 비중 1.3% 불과

전북상협, 상장법인 현황조사
 36개사로 수도권 격차 심각

전북 지역별 상장법인 수 조사에서 36개사로 전국의 1.3%에 불과해 수도권과의 격차가 여전히 큰 것으로 분석됐다.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회장 김정태)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상장법인은 총 36개사로 집계됐다고 8일 밝혔다.

시장별로는 △코스피 13개사 △코스닥 20개사 △코넥스 3개사가 포함됐다.

전북상협의 이번 조사는 한국거래소 등록 자료를 바탕으로 진행했다.

전북은 분점을 광주에서 김제로 이전한 (주)디에이치오트렉스(코스피, 통신 및 방송장비 제조업)와 강원에서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로 이전한 세븐브로이맥주(주)(코넥스, 알코올 음료 제조업)의 영향으로 상장법인 2개 사가 늘었다. 전주시에 소재한 (주)카이버이오텍(코넥스, 의약품 제조업)이 상장 폐지되면서 결과적으로 전북 상장법인은 1개사가 순증했다.

전북 내 자치단체별 상장법인 수는

△군산시 △익산시가 각각 9개사로 가장 많았으며 △완주군 7개사 △전주시 4개사 △정읍시 3개사 △김제시 2개사 △장수군 △부안군이 각각 1개 사로 집계됐다.

업종별로는 △전기·전자(10개사) △화학·의약품(8개사) △음식료(5개사) △자동차·운송(4개사) △금속·기계(3개사) △금융(3개사) △종이·플라스틱·소매업이 각각 1개사인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4월 말 기준 전국 상장법인 수는 총 2,761개사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수도권(서울·경기·인천)

2,007개사(72.7%)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1,107개사(40.1%) △경기 805개사(29.2%) △충남 109개사(3.9%) 순. 전국적으로 전년 대비 전국 상장법인 수는 총 76개사가 증가했다.

또 18개 시·도(해의 포함) 중 12개 지역에서 증가, 3개 지역은 감소, 나머지 3개 지역은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경기(772→805)는 33개사, 서울(1,085→1,107)은 22개사, 대전(56→65)은 9개사가 각각 증가해 상대적으로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냈다. /김영태 기자

감사와 사랑이 피어나는 5월, 가족과 함께 늘 행복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완주군의의회



전주시정研 “전주 중심 대광법 범위 논의해야”

『JRI 이슈브리프 제6호』 발간
정부지원 지자체 공동 노력
광역교통망 개선 과제 제시

전북자치도 전주시의 정책연구기관인 전주시정연구원(원장 박미자, 이하 연구원)은 8일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법(이하 특별법) 개정 통과와 관련된 전주시의 정확한 범위에 대한 지정이 아직 이뤄지지 않은 만큼 전주시를 중심으로 어느 범위까지 대도시권으로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대광법의 정부 지원을 통한 사업 수행을 위해 5년 주기로 수립되고 있는 광

역교통시행계획에 관련 사업이 포함되도록 전북특별자치도와 전주시의 지자체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이날 대광법 개정에 따른 전주시권 신설의 의미와 과제를 담은 『JRI 이슈브리프 제6호』를 발간했다. 대광법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형성된 대도시권의 교통 문제를 광역적인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법(제1조(목적))으로, 구간 수도권과 대전권, 광주권, 부산-울산권, 대구권 등이 기존의 대도시권으로 분류돼 광역교통망 개선을 위한 정부의 지원을 받아왔다. 하지만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전주시를 중심으로 대도시권이 형성돼 있을

에도 불구하고 중심지인 전주시가 광역시나 아니라는 이유로 이러한 지원에서 소외돼왔으며, 최근 전주시권을 포함한 대광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와 국무회의를 통과해 법률이 최종 공포됐다. 대광법에서 지정하는 대도시권과 지정받지 못한 전북특별자치도와 전주시의 대도시권(이하 전주권)의 가장 큰 차이점은 광역교통시설을 설치할 때, 유형에 따라 일정 비율로 정부예산이 지원된다는 점이다. 대도시권에서는 광역교통시설을 설치할 때, 중앙정부와 해당 지역의 지자체가 예산을 분담하는데, 광역도로의 경우에는 50%, 광역철도의 경우에는 70%, 그 외 기타 광역교통시설에 30-50%의 비중

으로 국고가 지원되고 있다. 연구원은 이러한 대광법 개정에 대해 전주권의 광역교통망 개선을 위한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한 뒤, 지역민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사업 수행을 위한 과제를 제시했다. 박미자 전주시정연구원장은 “이번 이슈브리프는 대광법 개정을 통한 전주시권 신설의 과정과 의의에 대해 파악할 수 있는 주요한 계기가 됐다”면서 “전주시권 신설은 광역교통망 개선을 위한 첫 관문으로, 본격적으로 전주권의 광역교통망 개선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재근 기자

정원전문가 전주에 모여 가든터 토크쇼

11일 전주정원산업박람회장 메인무대에서 정원근향나눔



제5회 전주정원산업박람회장에서 국내 굴지의 식물전문가와 정원가, 조경가와 함께하는 가든터 토크쇼가 펼쳐진다. 전주시는 오는 11일 오후 2시, 전주월드컵광장 내 정원산업박람회장 메인무대에서 가든터 토크쇼인 ‘전주 정담(庭談) 다담(茶談), 전주 정원 이야기 꽃 피우다’가 개최된다고 8일 밝혔다.

이날 토크쇼는 식물을 좋아하는 개그우먼 김미화 씨와 김승규 상선조경 대표, 강정화 한택식물원 이사, 이호영 HLD 소장, 안기수 SPACEMAKER1 소장, 손용훈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가 참여한다. 이들은 정원에 관한 각자 전문 영역에서 활동하며 겪은 이야기와 공유하고 싶은 사례, 꽃·식물 등 정원 근향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또한 초록정원사와 정원에 관심 있는 시민이 궁금한 내용을 질문하면 바로 관련된 전문가가 답하

는 ‘정원 문담’도 즉석에서 진행되는 등 정원 관련 전문가의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 정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 제5회 전주정원산업박람회는 9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오는 13일까지 전주월드컵광장 일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정재근 기자

전주시, 농촌형·도시형 농업 상생모델 구축·제시

완주전주통합 농업분야 조직 확대 개편 등 3대 전략

전북자치도 전주시가 완주·전주 통합을 염원하며 도시형·농촌형 농업의 상생 모델을 구축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강세권 전주시농업기술센터 소장과 박진상 완주·전주 상생발전 전주시민협의 위원회 위원장, 라승용 농업농촌분과위원장 등 8일 농업기술센터 정례브리핑을 통해 △농업 분야 조직 확대 개편 △농업 재정 확보를 위한 매년 농업 예산 증가 △농업의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농업발전기금 1000억 원 조성 등 3대 핵심전략을 중심으로 한 농업 분야 완주·전주 상생발전 비전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통합 시청사와 시의회 청사 등을 포함한 행정복합타운을 완주군에 건설과 상생발전 비전 및 광역생활권 구축을 위한 교통 분야 비전에 이어 세번째로 사업이다. 먼저 전주시는 통합시의 출범과 함께 농업의 발전을 위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행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농업행정과 농업기술 조직을 이원화하는 농정조직의 전면적인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농업정책의 효과적인 수립과 사업 총괄 기능을 담당할 ‘농업정책국’을 본청 직제에 신설해 농업 분야의 중장기 발전 전략 수립과 예산 및 사업 관리, 농업 관련 정책 협의 등을 총괄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는 직속기관으로 독립 운영하며, 농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적인 지원과 농업기술을 연구하고 도입하는 기능에 집중하기로 했다. 특히 농업기술센터는 변화하는 농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현장 기술 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전문 역량을 갖춘 조직으로 재정비된다. 이처럼 정책 부문과 기술 부문의 기능을 명확히 분리하되, 유기적인 연계와 협업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급변하는 농업환경 대응과 지속가능한 농업기반 조성을 위해 해마다 연평균 7% 이상의 농업예산을 확대해 다른 정책에 비해 소외되지 않도록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기준으로 전주시 농업예산은 696억 원, 완주군 농업예산은 1071억 원 수준으로, 시는 오는 2030년 통합시 농업예산



전북자치도 전주시가 완주·전주 통합을 염원하며 도시형·농촌형 농업의 상생모델을 구축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사진=전주시>

을 2500억 원 수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강세권 전주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상생 비전은 기후 위기와 산업 구조 변화 속에서도 농업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핵심 산업임을 전제로, 재정과 조직, 정책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을 실현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면서 “전주·완주 농업이 전후방 산업을 이끌며 지역 경제를 뒷받침하는 산업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재근 기자

완주는 생산 중심의 농촌형 농업이 중심이고, 전주의 경우 가공·유통·소매 중심의 도시형 농업이 발달해 있어 향후 통합시 차원의 공동 전략이 수립되면 시너지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정재근 기자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타워크레인 노조, 간담회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박형배)는 8일 시의회 회의실에서 한국타워크레인노조 전북지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노동자들의 안전과 권익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형배 위원장과 김세혁 부위원장, 이태근 한국타워크레인노조 전북지부장, 조형 부지부장, 김진근 대외협력국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최저가 낙찰제로 인해 발생하는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및 임금저하, 산업재해 문제 등을 공유하고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태근 지부장은 “낮은 가격에 나

찰된 현장에서 숙련도 낮은 인력이 투입되고, 안전장비가 미흡해 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가 낙찰제 개선 없이는 건설 현장 전반의 안전 확보가 어려운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박형배 도시건설위원장은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은 모든 근무 현장에서 최우선이어야 한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의회 차원의 정책 마련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도시건설위원회는 앞으로도 건설노동자들과의 소통을 이어가며 현장의 어려움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재근 기자

‘제3회 독립출판 북페어 전주책페어’ 전국 13개 후원사 선정

6월 7·8일 작당서 개최

대한민국 독립출판물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책 박람회인 ‘제3회 독립출판 북페어 전주책페어’ 행사에 전국 지역 책방과 독립출판사, 소상공인 후원자로 후원자로 나서게 됐다. 전주시는 오는 6월 7일과 8일 이틀간 전주남부시장 내 문화공판장 작당에서 펼쳐지는 ‘제3회 독립출판 북페어 전주책페어’(이하 전주책페어)의 민관협력을 공고히 하고, 연대와 포용의 축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총 13개 후원사를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7000명의 관람객이 찾으면서 책의 도시 전주를 대표하는 새로운 책 축제로 자리매김한 전주책페어는 올해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더라도 자기만의 깃발을 들고 ‘책의 기술’이 되자’는

방향성을 내걸고, 92개 독립출판 참가팀이 참여해 다양한 강연과 전시, 체험, 이벤트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올해 전주책페어의 후원사로는 △위로와 공감을 전하는 지역 책방 ‘잘의언어들’(전주시) △시각문화 계간지 ‘GRAPHIC’을 발행하는 독립출판사 ‘프로파간다’(군산시) △자연을 주제로 독립출판물 및 오브제를 제작하는 ‘카인드오브썸머’(서울특별시) △예술을 책속에서 펼쳐내는 팝업북 전문 출판사 ‘아트앤팝업’(고양특별시) △작고 단단한 미니북을 만드는 독립출판사 ‘회전문서재’(장성군) 등 전국 지역 책방과 독립출판사들이 포함됐다. 또한 △지도도를 중심으로 상상할 수 있는 책과 콘텐츠를 소개하는 ‘서점 프로젝트’(전주시) △지역의 양봉 농가와 꿀벌 보호를 지원하는 ‘주식회사 로컬

웍스’(전주시) △자연이 빛을 보아차로 몸과 마음에 휴식을 선사하는 프리미엄 티 브랜드 ‘주식회사 티엔프렌즈’(수원특별시) △버려진 일회용 필름카메라를 업사이클링해 국내 최초로 특수 렌즈를 개발한 ‘에프에프에프’ △농인 이야기를 중심으로 가져오는 신생 출판사 ‘연중무휴’(과천시)도 올해 책 축제에 동참한다. 여기에 △시민들의 힘으로 일상의 민주주의가 지켜질 수 있도록 법률적 조력을 돕는 ‘민중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전북지부’(전주시) △법률사무소 한서의 대표변호사로 청소년 도서 구입비 기부 등 전주시 문화 발전을 위해 다양한 사회 활동을 펼치는 김용빈 변호사(전주시) △1993년 시작한 주류 전문 브랜드로 매년 류류박람회 등을 개최하는

‘디오니카페&디오니스토어’(전주시)도 제3회 전주책페어에 함께하기로 했다. 전주시는 이들 후원사에 대해서는 공식 SNS 채널 및 공식 리플릿 등을 활용해 다양한 방법으로 이를 알리는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1600만 원 상당의 후원물품은 전시 공간 연출, 행사 홍보용 현수기 제작, 행사 체험 및 이벤트, 참가팀 편의를 위한 간식 제공 등 다양한 방면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최현창 전주시 도서관본부장은 “올해로 3회째를 맞은 ‘전주책페어’와 함께주시는 후원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공고한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시민들께서 독립출판의 매력을 듬뿍 느끼실 수 있도록 축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정재근 기자

제8회 전주시재가어르신 초청 어버이날 효도잔치

전북자치도 전주시 재가노인복지협회(회장 김윤규)는 8일 바울센터 그레이스홀에서 전주지역에 거주하는 340여 명의 재가노인이 참석한 가운데 ‘제8회 전주시재가어르신 초청 어버이날 효도잔치’를 개최했다. 이날 1부 행사는 △재가복지 기여자 표창 △장수노인 시상 △스카네이션 달아드리기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2부 순서로 가요와 민요, 색소폰 등 다채로운 축하공연도 펼쳐져 참석자들의 흥을 돋웠다. 김윤규 전주시 재가노인복지협회 회장은

“이번 효도잔치를 통해 어르신들께서 웃음과 행복을 만끽하셨으면 좋겠다”면서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며 일상생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역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동욱 전주시 부시장은 “어르신들은 전주시의 소중한 자산이자, 지역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이며 어르신들의 지혜와 경험이 우리 모두에게 큰 힘이 된다”면서 “전주시는 세심한 돌봄서비스와 든든한 복지정책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정재근 기자



전북은행봉사단,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포장 봉사

JB금융그룹 전북은행지역사랑봉사단(공동단장 백종일 은행장, 정원호 노조위원장)은 8일 전북은행 본점 1층 로비에서 여성청소년을 위한 ‘딸에게 보내는 선물’ 전달식을 실시했다. 지난 2020년부터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이번 사업은 경기침체 및 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큰 복지사각지대 여성청소년들에게 보건위생용품을 지원해 건강한 성장을 돕고 금융의 사회적 책임 수행에 앞장서기 위해 마련됐다. 전달식에는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한명규 회장, 전북은행 백종일 은행장, 전북은행노동조합 여성위원회 김태희 위원장, 전북은행지역사랑봉사단 4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전북은행지역사랑봉사단 및 전북은행노동조합 여성위원회 40여

명은 여성청소년을 위한 4000만원 상당의 보건위생용품 1,550박스 포장 봉사활동에 참여해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했다. 또한 여성청소년들이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피해예방 안내장을 동봉해 금융소비자보호에 앞장섰으며, 향후 지자체와 협력해 여성청소년들에게 기부물품을 전달할 계획이다. 백종일 은행장은 “사람이 넘치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여성청소년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을 항상 응원하며, 어려울 때 변함없이 함께하는 전북은행이 되겠다”며 “앞으로도 연중 직원들의 정성과 사랑을 담은 진정성 있는 사회공헌활동을 펼치며 누구에게나 따뜻한 금융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최성민 기자

전북, 농생명 창업기업 단계별 정밀 육성

농식품 창업아카데미 개편 식품창업지원 신규 도입 기업 세분화 분류 맞춤형 지원

전북특별자치도가 농생명 분야 창업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 기반 창업 육성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전북자치도는 기존 '농식품 창업 아카데미' 사업을 개편해 '식품기업 창업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새롭게 도입했다. 기존사업을 통해 시제품 개발 28건, 지식재산권 출원 7건, 박람회 참가 10건 등의 성과를 거둔 바 있으며, 이번 사업은 기업을 '투자유치형'과 '매출증대형'으로 세분화해 지원한다.

이는 도의 기술 기반 창업 생태계 확장 흐름에 발맞춰 창업 초기부터 성장

단계까지의 체계적인 지원체계 가동 구상이다.

투자유치형 기업에는 IR자료 고도화, 피칭스킬 지도, MVP(Minimum Viable Product) 제작, TIPS(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연계 지원에 민간·공공 투자유치 성과를 끌어올릴 계획이다.

· MVP(최소기능제품) : 제품 출시 전 핵심 기능으로 구성된 제품이나 서비스

· TIPS(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 지원 프로그램) : 우수한 기술아이템 보유 창업 기업 민간주도로 선발·투자, 정부자금 매칭 육성 프로그램

매출증대형 기업은 흡쇼룸, 라이브커머스 방송, 제품개선 등 판로개척과 제품 고도화 지원을 강화한다.

또 사업의 지원대상 분야 확대로 전국 유망기업 전북 유치를 도모한다.

이에 따라 올해 선정된 20개 기업 중 8개 사가 서울, 경기 등 도외 기업으로, 전국 유망 창업기업의 전북 유입이 가시화되고 있다.

지원분야는 식품제조에서 농생명·바이오까지 확대하며, 이를 통해 버섯균 사체 기반 식품포장재, 펩푸드, 음식배달 외국인 신원인증 서비스 등 다양한 혁신기술 기업들이 성장할 기회를 잡았다.

도는 도내 기업 육성과 타지역 유망기업 유치를 추진해 농생명산업 활력을 높이고 다양한 보조사업과 연계해 창업기업 지원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특화역량 BI 육성지원사업은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전북대학교, 에코융합성유연연구원, 전북과학대학교 창업보육센터가 참여해 창업기업을 육성하

는 사업이다.

또 창업 식품기업 지원사업으로 제품 생산설비와 검사장비, 작업공간 개선 등 생산 인프라를 강화할 수 있으며, 올해 사업단가를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상향해 6개 기업을 지원한다.

기업 투자 유치는 전북혁신성공 벤처펀드를 활용할 수 있으며, 조성된 펀드 중 농식품펀드는 총 420억 원 규모 성장 가능성이 높은 농식품경역체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최재용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등은 "농생명 창업기업이 겪는 다양한 성장 장벽을 해소하고 도약할 수 있도록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다"며 "앞으로 전북이 유망 창업기업들의 성장거점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체계적인 지원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고영훈 농협파트너스 전북지사장 부임

정음 출신 전주대학교 졸업 경험·마케팅 역량 높이 평가

농협파트너스 신입 전북지사장으로 고영훈(62) 전 농협네트웍스 전북지사장이 5월 1일자로 임명됐다.

정음 출신인 고영훈 신입 전북지사장은 전주대학교를 졸업하고 농협네트웍스 전북지사장을 역임했으며 재임 당시 지역사회와 농업인의 복지 증진 사업에 앞장서 온 베테랑 농협맨이다.

고 전북지사장은 다양한 업무경험과 탁월한 마케팅 역량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아 농협파트너스 전북지사장으로 발탁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고 지사장은 토탈클린사업, 소독방역사업, 장례지원사업 등 농협의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게 된다.



고영훈 지사장

농협파트너스는 2000년에 설립된 농협중앙회 계열사로 범농협의 비용절감과 업무효율성 향상을 위해 보안경

비 시설관리 플랫폼 등 다양한 분야에 양질의 인력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고영훈 지사장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도내 농업인과 농협파트너스 고객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농업·농촌의 경쟁력을 높이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전북, 행안부 '고향올래' 공모 전국 최다 선정

체류형 생활인구 유입 지원 익산·완주·진안·무주 선정 특별교부세 35억 확보

전북특별자치도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고향올래 공모사업'에 익산, 완주, 진안, 무주 4개 시군이 최종 선정됐다.

'고향올래 사업'은 지역 고유 자원과 특색을 살려 체류형 생활인구 유입을 지원하는 공모사업이다.

2023년부터 행정안전부가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으로는 '위케이션, 런케이션, 로컬유학, 두지역살이, 로컬벤처' 5대 분야로 나뉜다.

전북은 이번 선정을 통해 도 단위 최다 선정에 따른 역대 최고 성과를 달성했으며 전국적으로는 12개 사업이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전북은 총 35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

특히 지자체별 맞춤형 인프라 조성과정주 프로그램 핵심으로 선정된 지자체에게는 최대 10억 원 국비가 지원된다.

이에 따라 고향올래 사업에서 4건 추

가 선정을 통해 총 9개 사업, 65억 5천만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이번에 선정된 전북의 고향올래 사업은 △진안군(위케이션 분야) '진안고원 힐링 허브 : 해운 치유 라이프 워크센터 △무주군(런케이션 분야) '그림책놀이 창작터움터 조성' △완주군(로컬유학 분야) '온 마을이 하나되어 키우는 꿈배움터' △익산시(로컬벤처 분야) '타입브릿지, 익산 숲숨' 등이다.

진안군은 청정 자연을 기반으로 한 '해운 치유 라이프 워크센터'를 조성한다. 산림치유, 명상, 로컬푸드 체험 등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과 스마트 업무환경을 결합해, 힐링형 위케이션 중심지로 거듭날 계획이다. 인근 체험마을 및 자연휴양림과도 연계해 진안형 체류 모델을 제시한다.

무주군의 '그림책놀이 창작터움터'는 전통공예공방을 예술놀이 공간으로 탈바꿈해 아동 동반 가족 및 소규모 여행객을 위한 체류형 콘텐츠로 구성된다.

그림책 창작 활동, 상상만디움, 태권브이랜드 등과 연계해 무주만의 런케이션 모델로 발전시킬 방침이다.

완주군은 농촌유학 기숙사 증축과 가



전북자치도는 행정안전부 주관 '고향올래 공모사업'에 익산, 완주, 진안, 무주 4개 시군이 최종 선정됐다. 사진은 익산 창업로드. <사진=전북자치도>

속 체류공간 확보에 중점을 둔 '온 마을이 하나되어 키우는 꿈배움터'를 추진한다. 지역민과의 교류 확대, 자연환경 활용 교육 프로그램, 귀농귀촌 연계 지원으로 완주형 정착 유도 모델을 만든다.

익산시는 '타입브릿지, 익산 숲숨' 사업을 통해 근대역사지구 내 창업과 정주를 위한 숙박공간을 조성하고, 익산청년시장을 중심으로 한 청년창업 생태계

를 구축한다. 로컬창업타운 및 장단지 거주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이 머무는 도시로 도약한다.

천영평 전북자치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고향올래 공모에서 전북이 전국 최다 선정이라는 유의미한 성과를 거둔 것은 도와 시군이 함께 전략적으로 대응한 결과"라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신협재단-철도재단, 사회공헌 활성화 '맞손'

소외계층 문화체험 기회 제공 전국 2,759명 아동 기차여행

신협사회공헌재단(이하 신협재단), 철도공익복지재단(이하 철도재단)은 사회공헌 활성화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8일 양 기관은 신협재단의 '함께의 가치'를 창출하고 확산하는 '재단'과 철도재단의 '함께하는 사회' 비전 아래 대전 신협중앙연수원에서 소외계층 위한 지원과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

이번 MOU는 2022년 신협중앙회가 코레일, 한국전통문화재단, 초록우산과 함께 체결한 업무협약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졌다.

당시 4개 기관이 공동 추진한 '어린이 전통문화체험 기차여행' 사업은 이번 협약을 통해 더욱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사회공헌 영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체결식에는 신협재단 박규희 부부장, 한국철도공사 권영주 인재경영본부장, 초록우산 구미희 전북지역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문화 체험의 기회가 적은 소외계층을 돕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사회공헌 및 나눔 문화를 확산에 논의가 이뤄졌다.

신협재단은 철도재단과 함께 초록우산에 총 1억 7천만 원의 후원금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 사업은 단발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2022년부터 3년간 총 4억 5천만 원을 투입해 전국 2,759명의 아동에게 전통문화 체험과 기차여행의 기회를 선사하기 위한 사회공헌 활동이다.

신협재단은 전주시와 경주시에서 운영하는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의 전 과정을 후원하고, 철도재단은 KTX 전용칸을 제공해 아이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사업은 단발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2022년부터 3년간 총 4억 5천만 원을 투입해 전국 2,759명의 아동에게 전통문화 체험과 기차여행의 기회를 꾸준히 제공하며 지속 가능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자리 잡고 있다.

박규희 신협재단 부부장은 "이번 협약은 단순한 기관 간 협력을 넘어 우리 사회 아이들에게 따뜻한 경험을 선물하는 동행의 시작"이라며 "앞으로도 철도재단과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펼쳐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한국전기안전공사 '극한 환경 견디는 BESS' 개발

삼성 SDI와 표준모델 협업 실용화 국가연구사업 수주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남하영)는 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BESS)안전기술 개발을 위한 '극한 환경 대응 차세대 BESS 고신뢰성 검증 및 안전기술 개발' 국가연구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됐다.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안전연구원은 한국산 BESS 국제적 경쟁력을 강화하고, 전 세계 다양한 운영환경에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극한환경(-40℃~80℃)에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차세대 BESS 안전기술을 세계 최초로 고안했다. 특히 이를 실용화하기 위한 공모

에 참여해 올해 386억 원 규모의 국가연구사업을 수주하는 데 성공했다.

BESS는 배터리에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필요한 때에 사용하는 시스템을 일컫는다.

보통 발전시스템과 연계해 전력을 저장했다가, 수요가 급증하거나 발전량이 부족할 때 전력 공급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활용된다.

태양광·풍력 발전 등 기후에 따라 생산량이 달라지는 재생에너지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삼성 SDI와 협업을 통해 극한환경에도 대응이 가능한 고신뢰성·고안전성 차세대 BESS 표준모델의 개발에 나선다.



전기안전공사 극한환경 대응 차세대 BESS 표준모델 개발도 <사진=한전>

2028년까지 낮은 에너지손실률과 자가진단, 자가복구 기능 등을 갖춘 표준 모델 시제품을 개발해, 글로벌 BESS의

새 시장을 열고 국내 기업의 글로벌 시장점유율 선점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영태 기자

농촌진흥청, 인삼 해충 조기 출현 주의

인삼밭 해충 조기 방제 당부 지상·지하부 해충 동시 주의

농촌진흥청(정장 권재한)은 인삼 해충 출현 시기가 평소보다 빨라질 수 있다며 철저한 점검과 사전 방제를 당부했다.

인삼 해충은 줄기나 잎(지상부), 뿌리(지하부)를 갉아먹어 생육을 나쁘게 만들고 피해 부위에 병원균이 침입해 2차 피해가 생기기도 한다.

지상부 해충으로는 미국선녀벌레, 가루까지벌레, 달팽이류 등이, 뿌리 해충으로는 선충, 응애 등이 있다.

미국선녀벌레는 북아메리카 외래종으로, 줄기와 잎에 붙어 즙을 빨아 먹고 벌레 배설물은 그을음 증상을 일으킨다. 인삼밭 주변에서 겨울을 난(월동) 알의 약 70~80%가 부화하는데 애벌레가 활동을 시작하는 5월 중·하순이 방제 적기다.

가루까지벌레는 밭 근처 과수원이 발생 우려가 크며 주로 4년생 이상 인삼에

서 6월, 8월, 9월 초 발생한다. 잎 뒷면, 줄기, 잎자루, 뿌리 등에 붙어 즙을 빨아 먹고 흰색 실명치를 분비한다. 배설물로 인해 잎이 검게 변하면서 마른 뒤, 심하면 떨어지기도 한다.

달팽이류는 명주달팽이는 5~7월 피해를 주며, 밥이나 비 오는 날 낮에 줄기와 잎을 갉아먹는다. 들민달팽이는 막 씹이 난 잎을 시들게 한다. 피해 본 잎은 마치 뜨거운 물을 부은 듯한 증상이 나타난다.

선충은 당근뿌리혹선충은 잔뿌리에

혹을 만들어 영양분 흡수를 방해하고, 감자썩이선충은 곰팡이병인 뿌리썩음병과 비슷한 증상이 나타난다. 심하면 뿌리 속이 비거나 썩어 뿌리 자체가 어지기도 한다. 선충은 피해 발생 뒤에는 방제가 어렵다.

작은뿌리파리는 4월 중순~5월 하순 사이 가장 많이 발생하며 애벌레가 해를 끼치는 양상이 뿌리썩음병과 비슷하다. 뿌리응애는 일 년 내내 발생하지만, 특히 4년생 이상 인삼에서 6~9월 사이 발생한다.

/김영태 기자



고추는 4월 중순부터 5월 중순까지 본 포장에 옮겨 심는다.(좌) 노지 고추는 5월 초순에 정식하고 지주대를 바로 설치하는 것이 좋다.(우) <사진=전북농기원>

고추 심기로 분주한 농촌

농촌은 지금

고추는 4월 중순부터 5월 중순까지 본 포장에 옮겨 심기를 한다. 이 시기는 어린 고추묘가 따뜻한 온실에서 나와 처음 찬바람과 추위를 접하는 때다.

외부의 환경적 스트레스로 심한 물살을 양게 되거나 뿌리의 활착이 늦어질 수 있다.

고추는 본래 고온성 작물로 최저 온도를 12℃ 이상으로 관리해야 한다.

그러나 노지는 온도 조절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5월 이전에 정식은 경우, 비닐이나 부직포를 활용해 터널을 만들어 보온을 해 줘야 한다.

한편, 과도한 고온 발생 또한 피해가 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가령, 비닐 파복을 한 포장은 한낮에는 햇빛에 의해 고온이 발생하므로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환기할 필요가 있다. 밖에 찬바람이 불고 온도가 높지 않더라도, 햇빛을 받은 투명한 비닐 내부에는 30℃ 이상이 되므로 비닐에 구멍을 작게 뚫기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환기해 주어야 한다.

노지 고추는 5월 초순에 정식을 하고 지주대를 바로 설치해 주는 것이 좋다. 비닐에 의해 줄기가 흔들리면 뿌리 내림이 늦어지고 초기 생육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철저한 관리를 당부드린다.

<제공=전북자치도농업기술원>

道, 전주 올림픽 IOC 대응 차별화 속도전 용역 착수

(주)모노플레이인 용역 수주 전북만의 경쟁력 부각

전북자치도가 '전주 올림픽 유치' 위한 차별화 전략에 속도를 냈다. 전북도는 '전주 하계올림픽·패럴림픽 기본계획 수립 및 IOC 개최도시 선정 대응 용역' 착수보고회를 8일 개최했다.

이번 용역은 '하계올림픽·패럴림픽 기본계획 수립, 정부 및 IOC 심사 자료 작성, 경기·비경기 시설 자료 제작' 중심으로 진행됐다. 용역은 내년 2월까지 이어진다. 용역은 IOC 컨설턴트 등록 국제스포츠이벤트 업체인 (주)모노플레이가 맡아 수행한다. 해당 업체는 국제스포츠 유치·운영·

마케팅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고 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전주 유치를 위한 핵심 전략과 콘셉트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전북만의 경쟁력을 부각하기 위해 IOC 규정과 국제 유치 동향, 경쟁 도시들의 사례를 분석하며 차별화된 방향을 설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 자리에서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

은 전주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방안으로 K-컬처 전 세계적 확산 가능성과 연계한 브랜드 전략이 제안됐다. 김관영 도지사는 "올림픽 유치는 지역 성장의 촉매제가 되어 한다"며 "전주의 시민의식과 전통문화 우수성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도민과 국민 모두의 지지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북대, '계약정원제 활용 사업' 주관기관 선정

기업 연계 전략기술 교육 석사급 졸업 후 취업 보장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주관하는 '2025년도 계약정원제 활용 사업' 주관기관에 선정됐다. 이 사업은 기업의 채용 조건을 반영한 계약정원제를 활용해 전략기술 분야에 특화된 석사급 인재를 양성·공급함으로써, 중소·중견기업의 전문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라 전북대는 2027년 6월까지 2년간 △기업 맞춤형 전략기술 분야 실무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인프라 구축 및 교육과정 운영 △기업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산학협력 프로젝트 수행 등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첨단방위산업(첨단무기, 우주항공, 차세대통신, 무기체계, 드론 등), 반도체 부품생산, 기후테크 등 다양한 우수 기업에서 참여의사를 표했다. 특히 학생의 안정적인 학업 및 연구 수행을 위해 등록금(전액)과 학업장려금 지원, 해외(단기)연수는 물론, 산학협력 프로젝트를 통해 기업의 현장 문제 해결에도 나선다. 총 지원 규모는 약 30억 원으로, 석사 과정 20명 이상 양성을 목표로 하며, 교육지원비 20억 원과 프로젝트 지원비 1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전북대는 이번 사업을 통해 2025학년도 9월 석사과정 입학자를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학사학위 소지자 및 이와 동등한 학력 소지자(2025년 8월 졸업예정자 포함)로, 공과대학, 농업생명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소속 전공자를 중심으로 선발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전략기술 분야의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채용약정 기업 모집도 병행한다. 선발된 기업은 학생들의 현장실습 및 산학협력 프로젝트를 통해 직접적인 연구개발 인력 확보와 기술 문제 해결을 지원(지원금 4천만원 수준) 받을 수 있다. /최성민 기자

전북교육청, MZ 공무원 공직 이탈 막는다

신규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3년 이하 저연차 공무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인사제도안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최근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이탈이 가속화하면서 저연차 공무원의 고충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인력 관리 방안이 필

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전북교육청은 지난 3월부터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전담팀(TF)을 구성하고, 인사제도 개선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왔다. 현장 의견을 반영한 주요 개선 내용은 △신규공무원 정원 3명 이상 기관 우

선 보직 △신규공무원 주기적 인사상담 제도 마련 △2인 행정실 1년 6개월 이상 근무 저연차 공무원 순환전보 자격 부여 등이다. 개선안은 오는 6월 최종 확정, 7-8월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보직관리 규정 개정을 거쳐 내년 1월 정기인사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최성민 기자

조철호 총무과장은 "이번 인사제도 개선으로 신규공무원과 저연차 공무원의 안정적인 공직사회 적응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저연차 공무원의 보직 관리 유연성을 강화해 조직 전반의 활력과 인사 만족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전북교육청-미국 타코마교육청, 국제교육 협력

타코마교육청, 전북교육청 방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미국 워싱턴주 타코마교육청과의 국제교육 협력을 강화한다. 전북교육청은 8일 5층 회의실에서 타코마교육청과 '제2기 글로벌 브릿지 캠프' 운영을 위한 합의각서(MOA) 서명식을 진행했다. 글로벌 브릿지 캠프는 영어 의사소통 능력 향상 및 세계와 함께하는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전북교육청의 학생 해외캠프다. 도내 고등학생 28명이 7월 타코마시에 차려지는 이 캠프에 참가해 링컨고등학교와 스테이디움고등학교를 방문해 글로벌 역량을 기를 예정이다. 패트릭 어윈(Patrick Erwin) 타코마

교육청 국제교육부 국장을 단장으로 한 방문단은 5일부터 9일까지 전북을 방문해 국제교육 교류협력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타코마교육청의 이번 전북 방문은 전북교육청과 워싱턴주교육청이 지난 2023년 12월 체결한 국제교육 교류협약에 따른 교류 활동으로 이뤄졌다. 방문단은 전북의국어고등학교와 전주영중학교 등 다양한 국가와의 온라인 공동수업과 상호 방문 프로그램 등을 활발히 운영하고 있는 국제교류수업 운영 학교를 찾아 수업 운영 현황을 살펴보았다. 군산시청을 방문해 강임준 군산시장과 군산 지역의 학생 해외연수 확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최성민 기자



전북교육청 학폭 줄이기, 근절 캠페인

전북지역 학교폭력 심의 건수가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평화로운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 전북교육청은 8일 전주교대전주부설 초에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학교문화 책임규약 실천 캠페인'을 실시했다. 캠페인에는 서거석 교육감을 비롯해 전주부설초 학생과 교직원, 전주교육지원청, 전주완산경찰서 등 교육주체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해 학교폭력 없는 평화로운 학교문화 조성에 동참할 것을 다짐했다. 전북교육청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교육공동체의 공감대와 책무성을 강화하고, 학교 구성원 모두가 주도적으로 책임을 실천하는 문화를 조성해 학교폭력예방과 생

활지도 전반에 걸친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거석 교육감은 "학교폭력 없는 평화로운 학교는 우리 모두의 약속이며, 학생·교직원·학부모·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할 때 실현될 수 있다"며 "우리 교육청은 앞으로도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인성중심의 교육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과 캠페인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7일 중로학원이 학교알리미에 공시된 고등학교 학교 폭력 심의 결과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2년(2023-2024년) 전북지역에서는 총 485건의 학교폭력 심의가 이뤄지면서 심의 건수가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최성민 기자

전북지역 제1회 초·중·고졸 검정고시 합격자 발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025년도 제1회 초·중·고졸 검정고시' 합격자를 8일 도교육청 누리집(www.jbe.go.kr)에 공고했다. 지난 4월 5일 치러진 검정고시에는 초졸 86명, 중졸 244명, 고졸 944명 총 1,274명이 지원해 초졸 73명, 중졸 175명, 고졸 590명 총 838명이 최종 합격했다. 최고령 합격자는 초졸 73세, 중졸 76세, 고졸 80세이며, 최연소 합격자는 초졸 11세, 중졸 13세, 고졸 12세로 집계됐다. 합격증서는 우편 수령 신청자는 2-3일 후 받아볼 수 있고, 방문 수령 신청자

는 8일 오후 3시부터 오는 22일 오후 6시까지 응시한 지역의 교육지원청에서 수령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도교육청 누리집 공고문(교육소식-알림마당-고시/공고)을 참고하면 된다. 성적조회 역시 도교육청 누리집(알림마당-개인별공개시스템)에서 8일 10시부터 오는 27일 오후 6시까지 본인에 한해 확인 가능하다. 합격증명서, 성적증명서, 과목합격증명서 등 검정고시 관련 서류는 정부24, 각급학교 행정실, 도교육청 고객지원실, 교육지원청 민원실, 행정복지센터 무인민원발급기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최성민 기자

5월 야외 활동 시 안전수칙을 꼭 기억하세요!

등산

- 발에 맞는 등산화 착용하기
- 무리하게 산행 하지 않기

놀이시설

- 키제한에 맞춰 이용 하기
- 놀이 기구 마다 바른 자세로 이용하기

농기계

- 사용 전 후 점검 하기
- 음주 후 사용하지 않기
- 천천히 운전 하기

산불

- 라이터등 화기 가져 가지
- 논, 밭 쓰레기 태우지 않기

군산시, 수산 공익직불금 7월 31일까지 접수

군산시가 올해 '수산 공익직불제' 신청·접수를 어촌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서 오는 7월31일까지 받는다.

수산 공익직불제는 어업인의 소득을 안정시키고 수산업과 어촌의 공익기능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소규모어가 직불금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어선원 직불금 등으로 나뉜다.

먼저 '소규모어가 직불금'은 어촌에 거주하며 직전 연도까지 3년 이상 어업에 종사하고, 5톤 미만의 어선을 소유하며 연 수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거나 연 조업실적이 60일 이상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어가를 대상으로 하며, 연간 130만 원을 지원한다.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연 수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거나 연 조업실적이 60일 이상인 조건불리지역 거주 어업인(어가)에게 지급된다.

'어선원 직불금'은 전년도 6개월 이상 어선소유자와 고용관계를 유지했거나 승선근로한 대한민국 국적의 어선원이 대상이다. 세부 조건을 충족하면 130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접수는 어선의 선적항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받는다.

또한 농업·임업 직불금과 수산 공익직불금 간의 중복지급이 불가능하며, 관련 교육 이수 및 수산 관계 법령 준수 등 의무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직불금은 12월에 지급될 전망이다.

/군산=지송길 기자

군산시, 콘텐츠팩토리 입주기업 신규 모집

군산시가 콘텐츠 산업 분야 창업자를 육성·지원하기 위해 콘텐츠팩토리 입주기업을 신규 모집한다.

모집 기간은 오는 5월 19일부터 5월 23일까지로 대상은 캐릭터, 웹툰, 애니메이션, 게임, 영상, 소프트웨어 등 콘텐츠 산업 분야 예비 창업가 및 창업 5년 이내 기업이다.

입주를 원하는 기업은 군산시 누리집 고시 공고 또는 군산콘텐츠팩토리 누리집 공지 사항에 게시된 입주신청서를 작성하여 콘텐츠팩토리(해당로146-24) 3층 운영지원실로 방문하거나,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선정된 기업은 저렴한 임대료로 전용 사무공간을 사용하는 것 외에도 회의실 및 편집실 등 공유공간과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장비 등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입주 시기는 오는 7월 1일이며 최초 입주 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이다. 연장심사를 통해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시, '모두배움터'로 읍면 지역 평생학습 활짝

정읍시가 도심 평생학습기관 이용이 어려웠던 읍·면지역 주민들을 위해 이달부터 모두배움터의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이 사업은 학습매니저와 강사를 직접 파견해 주민들이 원하는 맞춤 강좌를 집 가까이에서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근거리 학습권을 보장하고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모두배움터 참여기관으로 총 15개소를 선정했다. 이들 기관은 △배움권(고부, 덕천, 정우, 상교) △나눔권(북면, 영원, 소성, 상교) △활력권(북면, 태인, 칠보, 산외) 등 3개 권역으로 나누어 면 지역의 경로당 등을 주요 학습 공간으로 활용해 교육을 진행한다.

모두배움터의 운영 기간은 오는 11월까지이며, 각 프로그램은 총 24차시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주민들은 공예, 건강, 운동, 야기연주 등 자신의 관심사와 필요에 맞는 다양한 분야의 프로그램을 선택해 참여할 수 있다.

시는 앞으로도 시민 누구나, 어디서든 원하는 학습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시-소이미푸드, 130억 투자 협약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두부 전문 공장 신축

익산시가 식품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익산시는 8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소이미푸드(대표 신희수)와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소이미푸드(주)는 2013년 충남 계룡시에 설립된 두부 전문 식품기업이다. 국내 시장에서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

며, 탄탄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외 시장 진출에도 주력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소이미푸드(주)는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2만 2,910㎡(약 6,930평)의 부지에 총 130억 원을 투자해 공장을 신축하고, 약 50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투자는 국내의 경기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도 익산시와 국가식품클러스터의 가치를 높게 평가해 이뤄진 것으로, 지역 식품산업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희수 대표는 "국가 식품산업의 핵

심 거점인 국가식품클러스터에 투자하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빠른 투자 이행으로 사업을 확장해 익산 지역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국내·외 경제위기 속에서도 익산시의 미래 가치를 믿고 투자를 결정해 준 소이미푸드(주)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시는 투자 기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답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시 '서해 대표 수산시장'이 뜬다!

8일 수산물종합센터 착공

군산시가 수산물종합센터의 노후 건어 매장을 철거하고 지역경관에 적합한 매장 신축공사를 8일부터 본격 착공한다.

이번 공사는 수산물종합센터 본관동 신축 시 제외되었던 노후 건어 매장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시는 공사를 통해 건물 안전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한편 지역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설계를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효율적인 점포배치 등 내외부 종합적인 개선으로 시장경쟁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군산 수산물종합센터 조감도



군산 수산물종합센터 조감도

<사진=군산시>

군산 수산물종합센터는 지난 2023년 5월 본관동 신축 이전 후 이용객이 급증하면서 서해 대표 수산 시장으로 자리를 잡았다. 특히 시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수산물원산지표시 전국 최우

수 시장 선정 등 다방면으로 시장 이미지 제고를 위한 노력을 해왔다.

시는 건어 매장이 완공되면 상인과 시민 모두가 편리하고 쾌적한 시설에서 판매와 구매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하고 있다. 아울러 시민과 관광객에게 다양하고 품질 높은 수산물을 편하게 구매할 수 있는 지원책도 병행할 예정이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시 공공산후조리원, 2026년 10월 문 연다

84억 투입 올해 10월 착공

정읍시가 산모와 아기의 건강한 출생을 지원하기 위해 건립 중인 공공산후조리원이 더욱 쾌적하고 산모 중심적인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시는 당초 계획보다 부지를 확장하고 설계를 개선해 오는 2026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정읍아산병원 인근 용계동 353번지 외 4필지에 총 사업비 84억원(도비 35억, 시비 49억)을 투입, 지하 1층~지상 3층, 연면적 1694㎡ 규모의 공공산후조리원을 건립한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올해 10월 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다.



이행 등으로 사업이 일부 지연됐으나, 결과적으로는 더욱 향상된 시설을 갖게 됐다.

인접 토지를 추가 매입함으로써 아산병원 방면 소도로를 활용한 접근성이 크게 개선됐으며, 부채꼴 모양의 개방형 설계를 통해 우수한 채광을 확보했다.

또한, 연면적 확대도 층별 구조와 공간을 새롭게 재배치해 이용자 중심의

효율적인 공간 활용이 가능해졌다.

이학수 시장은 "인접 토지 매입과 설계 변경으로 인해 사업이 일부 지연된 점이 있으나, 이를 통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며 최신 설비를 갖춘 공공산후조리원을 선보일 수 있게 됐다"며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여 건립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 농촌, 체험·숙박·청년 정착까지

종합농촌관광 지원책 본격 추진

익산시가 농촌의 매력을 극대화한 종합농촌관광 지원책을 본격 추진하며, 농촌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시는 농촌관광 인증 경영체 운영, 청년 농촌활동가 네트워크 육성, 체험·숙박비와 교통비 지원, 크리에이티브 여행상품 운영 등 다양한 전략으로 농촌관광 기반을 탄탄히 다지고 있다.

이는 단순 관광을 넘어 농촌 인구 유입과 지역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는 지속 가능한 농촌 발전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2년 연속 선정된 농촌 크리에이티브 지원사업은

청년 10명이 주도적으로 농촌관광 콘텐츠를 기획·운영하며 지역과의 유대감을 높이고 있다.

또한, 지난해 농촌체험휴양마을(10개소)에 더해 농촌관광 인증 경영체 15개소가 추가 선정돼 체험과 숙박 인프라가 대폭 확충됐다.

관광객 유치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도 강화된다. 이달부터는 체험·숙박비 지원 사업이 시행돼 1인당 1일 최대 1만 원씩 지원받을 수 있다. 4인 이상이면 즉시 신청 가능하다. 20명 이상 단체에는 익산 지역 최대 20만 원, 익산 이외 최대 40만 원까지 버스 임차료를 지원해 교통비 부담도 크게 낮췄다.

여기에 더해 익산시는 전북특별자치도 농촌관광 경쟁력 제고 공모사업에 3

년 연속 선정되는 성과도 이뤘다.

2023년 다송무지개 매화마을 글램핑장 조성, 2024년 성당포구 바깥개비길 야간경관 조성 등 체류형 관광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해왔다.

올해는 미륵산권역에 별을 보며 잠들 수 있는 자연 친화형 숙박시설을 조성해 세다른 농촌 체험 콘텐트를 선보일 예정이다.

권혁 바이오농정국장은 "농촌관광 활성화와 귀농·귀촌을 연계한 통합 지원으로 지역 정착까지 아우르는 지속 가능한 농촌발전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농촌관광 상품을 더욱 다변화하고, 청년과 가족 모두가 행복한 농촌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익산 백제 유산에서 만나는 음악과 이야기

유네스코 등재 10주년 기념

익산시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미륵사지와 왕궁리유적을 배경으로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프로그램은 '2025 백제역사유적지구 선율속으로'와 '세계유산에서의 답사'가 진행되며, 단순한 관람을 넘어 유산을 오감으로 향유할 수 있는 시간으로 구성돼 시민과 관광객을 맞이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10주년을 맞아 국가유산청의 '세계유산 활용 프로그램 공모사업'으로 마련됐다.

'백제역사유적지구 선율속으로'는 오는 10월 10일 오후 1시 30분 미륵사지 특설무대에서 첫 공연이 열린다. 룩스필하모닉오케스트라와 함께 소프라노 김아라, 팬텀싱어 출신 테너 송근혁 등이 출연해 창작곡과 영화 OST, 클래식 갈라공연으로 이뤄진 무대를 선보인다.

이어 5월 31일에는 백제왕궁(왕궁리유적) 특설무대에서 두 번째 공연이 펼쳐진다. 테너 최진호, 소프라노 정하은, 가수 씨나일이 출연해 클래식과 대중음악을 넘나드는 공연으로 관람객들에게 예술적



향유의 시간을 제공한다.'

세계유산에서의 답사'는 대중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명사를 초청해 시민들과 만남의 자리를 가지는 프로그램이다. 오는 10월 오후 3시 30분 미륵사지에서 영화평론가 전찬일을 초청해 첫 포문을 연다.

오는 31일 백제왕궁에서 진행되는 두 번째 세계유산에서의 답사는 영화 '서울의 봄'과 '비트의 감동' 김성수를 초청해 시민과의 만남을 이어간다.

시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예술인의 공연 참여를 확대하고,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중심으로 한 문화관광 콘텐트를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현업근로자 건강안전관리 강화

서동식 과장, 산업보건과의 위촉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해 정읍시가 전문 의료인과 손을 잡았다.

시는 지난 7일 서동식 정읍아산병원 직업환경의학과장을 산업보건으로 위촉하고, 현업근로자 맞춤형 건강관리 시스템을 가동한다.

이번 산업보건의 위촉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종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조치다. 관련 법규는 50인 이상 근로자가 근무하는 공공기관에 대해 직업환

경의학과 또는 예방의학과 전문의를 산업보건으로 선임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동식 과장은 앞으로 정읍시청 소속 현업근로자 700여 명의 건강관리·산업재해 예방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서동식 산업보건과는 "수년간 직업환경의학 전문으로서 쌓아온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시청 현업근로자들의 건강 유지·증진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시, 다이로움 고교 역량강화 사업 추진

익산시가 교육발전특구 사업과 연계한 '익산형 다이로움 고교 역량강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8일 익산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공교육 혁신을 목표로, 학교별 특성과 교육 수요에 맞춘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올해는 교육발전특구 사업과 연계해 총 8억 1,367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이를 통해 학업 경쟁력 강화와 진로·

취업 성과 제고를 적극 뒷받침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에는 △익산고 △남성고 △원광고 △이리고 △이리공고 △전북과학고 △원광보건고 등 지역 내 17개 고등학교가 참여한다. 각 학교는 정체성과 학생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을 통해 기존 보충수업 위주의 방식에서 벗어나, 학생 맞춤형 교육 모델을 선보일 계획이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농촌 미래 청사진 그린다

정읍시가 지속 가능하고 매력적인 농촌을 만들기 위한 청사진 그리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시는 지난 7일 분청 대회의실에서 '정읍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농촌 공간의 미래를 새롭게 설계하기 위한 힘찬 첫걸음을 내디뎠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농촌공간계획의 전반적인 개요와 향후 과업 추진일정, 그리고 정읍시만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기본계획 수립 방향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이번 기본계획은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라 수립되는 것으로, 전국 139개 농촌지역 지방자치단체는 올해까지 향후 10년을 내다보는 중장기 전략 계획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농촌지역의 체계적인 관리와 함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게 된다.

/정읍=김정인 기자

김제 치유농장, 웰니스 관광지 선정

휘게팜·꽃다비팜 2곳 정서안정 프로그램 운영 농촌에 새 패러다임 제시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김제 치유농장(휘게팜, 꽃다비팜) 2곳이 전북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전북형 웰니스 관광지 10개소 신규 모집'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달 29일 2025년 웰니스 관광지·시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현장평가를 심도있게 진행해 자연·치유분야, 전통·생활문화분야, 뷰티·스파분야, 치유음식분야 등 총 4개 테마로 나눠 총 10개소를 선정했다. 시는 자연·치유 분야에 꽃다비팜, 치유음식 분야에 휘게팜, 2개소가 선정됐다.

'치유관광지'란 관광자원외 기반한 치유 콘텐츠 및 프로그램을 체험함으

로써, 신체적·정신적 건강의 증진과 회복을 얻는 장소를 의미한다. 김제시농업기술센터(소장 강기수)는 매년 2억여원 예산을 들여 치유농업인 육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치유농장 운영자 역량강화 교육, 농촌자원 활용 치유농장 육성 사업 및 농촌체험농장 육성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관내 현재 40여개 치유농장을 집중 육성·지원하고 있다.

꽃다비팜과 휘게팜은 김제지역의 치유농업 선구자로 건강과 아름다움 그리고 관광의 치유 테마를 타 지역에 모범으로 선도하고 있다.

꽃다비팜은 한 농장에 치유농업사 2명을 보유하고 있는 치유농업 전문농가로 지적장애인, 치매노인, 청소년들의 정서적 안정과 마음 치유를 목적으로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휘게팜은 거친 일상에 지친 도시민들과 치매노인, 인지발달 장애인 등을 대

으로 아름다운 레드향 정원과 웰빙 음식을 활용해, 오감 힐링 원예치유, 저자극 슬로푸드, 클라인가르텐 치유농업 프로그램, 스키체험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전북특별자치도로부터 수은테세 개선 지원금 지원과 신규 프로그램 개발 및 상품화 등 전문가 컨설팅 지원으로 전라북도특별자치도의 치유핵심 농장으로 육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김제의 대표 치유농장이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치유를 목표로 하는 웰니스 관광지에 선정되어 무한히 기쁘고, 이를 더욱 발전시켜 김제를 전국 치유농업의 메카로 발전시키면 많은 치유 관광객들이 방문하여 어려운 농촌에 새 패러다임을 제시하여 참여 농가의 소득 증대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제=은봉기 기자



부안청자박물관, 도자기·민화 기획전

10월 12일까지 전시

부안청자박물관은 지난 3일부터 오는 10월 12일까지 전시동 1층에서 기획전시 '도자기 따라 민화 산책'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고려시대에서 조선 시대에 이르는 청자, 백자, 분청사기 등의 명품 도자기와 조선 후기 민화 책거리 병풍·액자를 컬래버레이션하여 한국 전통 예술의 깊이와 아름다움을 새롭게 조명하고 있다.

조선 후기 정조 임금때부터 유행하기 시작한 민화 책거리는 책을 보관하는 공간을 표현하며, 선비에게 꼭 필요한 서적, 문방사우(붓·벼루·종이·먹)와 함께 꽃, 새 등 진귀하고 길상(吉祥)의 의미를 상징하는 다양한 기물이 그려져 있는 실용과 예술성을 겸비한 우리 민족

고유의 정서가 담긴 그림이다.

이러한 민화(民畵)는 정물화, 반추상화 등 여러 장르를 아우르는 예술작품으로 개성과 아름다움이 넘쳐흐르고 있다.

석채(石彩, 靑靑 안료)를 이용한 묵직하고 강렬한 색채, 서양화법을 이용한 공간의 독창적인 구도와 표현, 동물·식물·상상 속 동물 등 현실과 비현실을 넘나드는 다양한 소재의 어울림으로 독특한 미감을 자아내고 있다.

이번 전시는 우리 곁에 은근히 끈기 있게 존재하는 오래된 것들은 단순히 구시대적 산물에 머무르지 않고 옛사람들의 정취와 염원이 서려있는 살아있는 문화생명체로서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느끼실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이다.

/부안=신상수 기자

고창군, 귀농청년 외부 유입 35% 차지

고창군에 외부 청년농업인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지역 농촌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8일 고창군에 따르면 올해 고창군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최종 선정자 37명 중 35%가 외부에서 유입된 청년들로 조사됐다.

이는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처럼 귀농청년농업인의 유입이 활발해지면서, 고창군은 그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과 농업 성공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고창군농업기술센터는 외부 청년들

이 고창 지역사회에 자연스럽게 녹아 들 수 있도록 '청년 사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지역 선배 농업인들과 교류를 활성화하고, 공동체 적응을 도울 예정이다.

고창군농업기술센터 현행열 소장은 "청년농업인이 지역 농업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주체인 만큼 외부에서 유입되는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부안군, 수산물 소비 촉진 온누리상품권 환급

구입금액 최대 30% 1인당 최대 2만원 한도

부안군은 가정의 달을 맞아 국내산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9일부터 오는 13일까지 부안상설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수산물 소비 촉진과 소비자 체감불가 안정을 통해 지역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부안상설시장 내 환급행사 참여점포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할 소비자는 구입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최대 2만원 한도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행사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소비자는 당일 결제한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부안상설시장 1층 환급행사 장소에 방문하면 되며 구매금액이 3만 4000원 이상이면 1만



부안군은 가정의 달을 맞아 국내산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9일부터 오는 13일까지 부안상설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

원을, 6만 7000원 이상이면 2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이번 행사를 통해 가정의 달을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

란다"며 "앞으로도 전통시장과 지역산권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심덕섭 고창군수, 풍년기원 모내기 구슬땀

조민규 의장 등 동참 농가 소득 증대 지원책 약속

심덕섭 고창군수가 지역 농민들과 함께 풍년농사를 기원하며 모내기를 실시했다.

심덕섭 고창군수와 조민규 고창군의회 군의장과 군의원들은 8일 오전 신림면 송용리 모내기 현장을 찾아 직접 이앙기에 올라 모내기를 실시했다.

이번 방문 현장은 기범수(60)씨의 논에서 진행됐다. 기씨는 신림면 일대 약 17.9ha의 논에서 쌀을 재배하고 있다.

고창군은 5월 중순부터 한 달간 본격적인 모내기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본격적인 모내기철을 맞아 벼농사 필수 영농자재인 벼 못자리용 상토와 제초



용 우렁이, 벼 육묘장 등 지원사업을 추진해 적기 영농을 지원하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변화와 성장, 미래를 여는 고창을 위해 농업 현장의 목소리

에 귀 기울이고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김희옥 김제부시장 "정치권 유기적 협력 요청할 것"

내년 국가예산 사업 반영 부처·사안별 다각 대응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8일 2026년 국가예산 편성 순기상 부처 예산편성 시기인 4~5월 동안 각 부처에서 실시한 중앙부처 일제 출장 결과를 토대로 '2026년 국가예산 부처단계 대응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중앙부처 일제 출장을 통해 도출된 2026년 주요 국가예산 사업의 부처 심의 동향, 사업 반영 및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진행됐으며,

국·소장과 소관 부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출장 결과를 공유하고 막바지 부처단계에서의 사안별 대응방안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를 진행했다.

보고 대상 사업분야는 지난 3월 28일 진행됐던 보고회의 신규사업 뿐만 아니라, 계속사업과 공모사업 등으로 확대 진행했으며, 주요 보고 사업은 스텝장차 안전 신뢰성 향상 및 기술 융합 기반 구축 △새만금 남북3축도로 건설 사업 등을 포함했다.

향후 시는 이번 보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부처 출장을 실시해 사업 타당성과 필요성에 대한 논리보강 등을 통해 기획재정부 예산안 제출 시기인 이달 말까지 총력 대응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김희옥 부시장은 "김제시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면 중앙부처와 정치권에 지속적인 건의와 유기적인 협력을 요청할 것"이라며, "국가예산 확보를 통해 김제시의 중점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어오면 김제시민들에게 더 나은 미래가 주어질 수 있다"고 당부했다.

/김제=은봉기 기자

김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김제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7일부터 오는 28일까지 3주간 '2025년 상반기 김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상품권 결제가 높은 가맹점을 중심으로 결제내역을 점검하고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결제내역 추출 및 주민신고 등을 토대로 의심 가맹점을 현장 방문하여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단속대상은 △사행산업 등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재화

와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일명 '깡') △부정 수취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등으로 부정유통 적발 시 관련 법률에 따라 가맹점 등록취소 및 최고 2,00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이영복 경제진흥과장은 "김제사랑상품권은 지역 소상공인을 돕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소중한 수단"이라며, "정직하고 투명한 김제사랑상품권 사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김제=은봉기 기자

고창군, 고향사랑기부제 독려 1+1+1 이벤트

고창군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고향사랑기부제에 많은 분들의 참여 독려 및 풍성한 혜택 제공을 위해 '5월 1+1+1 토크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 31일까지 한 달간 진행되며, 이벤트 기간동안 10만원 이상 고향사랑기부제에 기부하면 무작위 추첨을 통해 25명에게 3만원 상당의 고창군 특산품을 추가 증정한다.

이벤트 참여방법은 고향사랑e음 또는 전국 농협은행과 농축협 지점에 10만원 이상 기부하면 자동으로 응모되며, 당첨자는 6월 9일 이후 개별 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다.

고창군 관계자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을 전하는 기부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특별한 혜택으로 보답하고자 이번 이벤트를 마련했다"라며, "이번 '1+1+1 토크이벤트'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하고, 고창의 매력을 느껴보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올해로 제도 시행 3년 차를 맞은 고향사랑기부제는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지자체에 연간 2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다. 10만 원 이하 기부금은 전액 세액공제되며,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기부자는 기부액의 30% 이내에서 담례품을 제공받을 수 있다.

/고창=백종규 기자

부안군, 14일까지 해수욕장 5곳 안전관리요원 모집

부안군이 2025년 여름철을 앞두고 해수욕장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관리요원을 모집한다.

이번에 모집하는 안전관리요원은 모두 103명으로 7월 3일부터 8월 17일까지 46일간 변산해수욕장을 비롯한 부안군 관내 해수욕장 5곳(변산, 모항, 격포, 고사포, 위도)에서 안전사고 예방,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응시 자격은 만 18세 이상~만 65세 이하의 인명구조 자격증 보유자 등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소지자, 응급처치 관련 자격 보유 시 우대하여 채용한다.

신청은 오는 14일까지 구비서류를 갖춰 부안군청 해양수산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 및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채용 절차는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거쳐 27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고, 합격자들은 구조장비 사용법과 심폐소생술 등 직무 교육을 받은 후 관내 해수욕장 5개소에 배치되며 모집과 관련된 세부 내용은 군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시험·채용에 안내돼 있다.

부안군 관계자는 "올여름 관내 해수욕장 이용객들이 안전하고 즐거운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운영 및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부안군, 어버이날 기념 효행사 노인복지기여자 총 16명 표창

부안군은 지난 7일 군청 2층 대강당에서 제53회 어버이날을 맞아 효행사 13명, 노인복지기여자 3명 등 총 16명에게 군수 표창을 수여했다.

효행 부분 군수 표창은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극진히 봉양한 부안읍 김모씨, 92세의 노모를 모시고 있는 동진면 정모씨 외 11명이 효행상을 받았다.

노인복지기여자 표창부분에서는 박모씨 외 2명이 어르신들에게 성실하고 편안한 서비스를 제공한 공이 인정되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축하의 말을 전하며 "어버이에 대한 사랑과 헌신으로 어르신들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고 경로효친 문화가 더욱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김제시 복지환경국장·주민복지과 향산면서 농가 일손 돕기 활동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복지환경국장 및 주민복지과 직원들이 8일,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일손 돕기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박금남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주민복지과 직원 17명이 참여한 가운데, 향산면 연리마을의 한 과수 농가에서 진행됐다. 직원들은 열매 적과와 잡초 제거 작업을 통해 농가의 일손 부족을 해소하는데 힘을 보태며, 구슬땀을 흘렸다.

참여한 주민복지과 직원들은 "매년 농번기마다 반복되는 농촌 일손 부족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고 작은 보탬이 될 수 있어 매우 뜻깊다"며 적극적으로 작업에 참여했다.

해당 농가는 "복숭아 적과 시기를 놓치면 수확에 큰 차이가 생기는데 요즘 일손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공직자들이 직접 나서주셔서 매우 감사하다"고 밝혔다.

박금남 복지환경국장은 "봄·가을철마다 농촌 현장의 어려운 현실을 체감하는 시간이었으며, 농가에 작은 힘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김제=은봉기 기자

남원, 전북형 반할주택 본격 추진

전북개발공사와 실무협의회 공공임대주택 100세대 건립 청년·신혼 임대보증금 지원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정책의 새로운 모델로 주목받고 있는 '전북형 반할주택' 사업이 남원시에서 본격적으로 궤도에 오른다.

남원시는 이번 주 전북개발공사와 기본업무 협약 체결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남원시가 '2025년도 전북형 반할주택 공모사업'에 선정된 이후, 구체적인 실행 단계를 밝기 위한 첫 공식 행보다.

이번에 꾸러질 실무협의회는 남원시와 전북개발공사 실무부서 담당자들로 구성되며, '2025년 전북형 반할주택 건립사업'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실무협의회는 △사업 후보지 개발 방향 설정 △사업 추진 일정 협의 △임대 수요 반영 방안 △남원시-전북개발공사 간 역할 분담 등을 논의하며, 이를 통해 사업 추진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남원시는 이를 바탕으로 향후 실시계획, 인허가, 착공 등 단계별 일정에 맞춰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 내 유관기관과의 협업 체계도 공고히 해 나

갈 방침이다. 남원시 반할주택은 향교동 일원에 공공임대주택 100세대를 2029년까지 공급할 예정이며,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최대 5,000만원의 임대보증금을 무이자 지원해 초기 자금 부담을 줄이고, 시세의 50% 수준인 반값 월세로 거주할 수 있는 혜택도 제공한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인구소멸 위기에 대응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야 할 때로, 청년과 신혼부부가 이곳에서 안심하고 미래를 그릴 수 있도록 남원시가 든든한 시작이자 오래 머물고 싶은 삶의 터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순창군, 혁신추진단으로 소통 행정 강화

3기 군민소통혁신추진단 모집 지역주민 의견 발굴 정책 반영

순창군은 군정에 대한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 중심의 행정 운영을 실현하기 위한 '제3기 군민소통혁신추진단'을 모집한다.

군민소통혁신 추진단은 군민과 행정 간 소통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며, 군정 주요 정책에 군민의 현상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순창군 대표 소통 채널이다.

군은 군민이 군정의 주체로서 직접 참여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장을 마련함으로써 정책의 수용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한 행정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단을 운영해 왔다. 지난 1기와 2기 운영을 통해 현재까지 총 114건의 정책 및 건의사항을 발굴했으며, 이 중 약 70여건의 의견을 반영해 추진 중이다.

이번에 모집하는 제3기 추진단은 지역 주민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의견을 군정에 반영하고, 군민이 체감하는 생



순창군은 군정에 대한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 중심의 행정 운영을 실현하기 위한 '제3기 군민소통혁신추진단'을 모집한다. <사진=순창군>

활 밀착형 정책 발굴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활동 기간 동안 추진단은 정기회의와 간담회, 현장 의견 수렴 등의 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군정 참여 기회를 얻게 된다.

모집 대상은 순창군민으로 순창군 발전에 관심 있는 군민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며, 농업·문화·복지·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 관심과 역량을 가진 주민들이 참여하기를 바란다

고 밝혔다. 모집기간은 이달 16일까지이며, 신청 방법은 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한 후 기획예산실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에는 지원 동기, 관심 분야, 주요 경력 사항 등을 포함해 있으며, 이를 통해 군은 추진단 구성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함께 고려해 최종 인원을 선발할 계획이다.

/순창=박지현 기자

완주, '아동부터 양육자까지' 맞춤형 아동권리교육

완주아동옹호서비스사무소 28개 기관 2천여명 교육

완주군 아동옹호서비스사무소가 관내의 모든 구성원들이 아동의 권리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존중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5년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을 시작한다.

이달부터 시작되는 교육은 9월 말까지 5개월간 사전 접수된 관내 아동 및 청소년, 양육자, 아동관련기관 종사자, 일반 군민 등 28개 기관 2,0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교육은 완주군이 자체 양성한 아동권리교육강사 및 완주군 아동권리교육협의회의 기관·단체를 통해 △아동기본권 △안전 △노동인권 △식생활 △기후환경 △폭력예방 △성교육 등 10개 영역 17개 프로그램을 연립별 맞춤형 교육으로 실시한다.

군은 지난 2022년부터 전국 최초로



완주군은 이달부터 9월 말까지 28개 기관 2천여명을 대상으로 '2025년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을 시작한다. <사진=완주군>

개소한 아동옹호서비스사무소를 통해 '찾아가는 맞춤형 아동권리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다.

지난 2021년부터 아동친화도시 중장기기본계획에 따라 아동권리교육 강사를 자체 양성하고, 지역단체와의 연계·협력을 통해 프로그램을 개발해 완주형 아동권리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아동의 권리는 특정 집단만이 아닌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사회의 기본 가치"라며 "앞으로도 아동이 존중받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행정과 지역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완주=김명곤기자

남원 드론·AI 기반 영농관리서비스 본격화

스마트영농 '농부' 착수회 영상자료구축·AI분석 농업

남원시는 한국국토정보공사와 '2025년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 선정을 통한 스마트 영농관리 서비스, 농부(Nong-View) 구축 사업을 수행하게 됐으며 이를 위한 착수보고회를 8일 남원 스위트호텔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남원시의 영농관리 어려움을 드론 및 AI기술을 통해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영농 현장을 정밀하게 파악한다.

이를 위해 남원시 전지역의 드론 영상데이터 구축, AI 분석을 수행하고 △조작료 생산관리 △농지이용실태조사 관리 △비닐하우스 운영관리 총 3건의 서비스 개발 및 실증할 계획이다.

이번 착수보고회는 남원시와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관계자 25여 명이 참여

한 가운데,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성공적인 서비스 개발·실증을 위해 주요 사업별 추진방안을 논의하고 AI·드론·농업 등 분야별 전문가와 함께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남원시 관계자는 "본 사업을 통해 농업의 디지털 전환 선도를 위한 기반 마련과 AI·드론 기술을 활용한 과학적 행정서비스 모델링 마련으로 혁신적 행정서비스 환경을 구축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군은 지난 7일 2025년 귀농귀촌 행복멘토단 4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사진=완주군>

완주군 귀농귀촌 행복멘토단 활동 개시

2025년 멘토단 4명 위촉 영농 전수정책 안내 등 활동

완주군이 지난 7일 2025년 귀농귀촌 행복멘토단 4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오는 9월 말까지 시설농업 및 마케팅, 로컬푸드 가공, 6차 산업 및 치유농장·체험, 친환경농업 4개 분야에서 대면 또는 전화 상담을 통해 영농기술 노하우를 전수하고 귀농귀촌에 도움이 되는 지원정책 정보들을 안내하는 등 귀농귀촌인을 위한 멘토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다.

완주군 귀농귀촌 행복멘토사업은 지난 2015년도에 시작돼 현재까지 매년 귀농귀촌 희망자 및 초기 귀농귀촌인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이번 사업이 예비 및 초보 귀농귀촌인에게 길잡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귀농귀촌 1번지 완주군으로 귀농귀촌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멘토단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초기 정착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완주=김명곤기자

/남원=정하복 기자

최영일 군수, 요양시설 입소 어르신 위로 방문

어버리날 맞아 존경심 전해 가족초청·공연 행사 진행

순창군 관내 요양시설에서 8일 제 53회 어버리날을 맞아 순창군 관내 요양시설에서 어버이 은혜에 감사하는 뜻깊은 행사가 열렸다.

이날 최영일 순창군수는 순창군노인전문요양원, 육원요양원, 순창노인복지센터를 방문해 어르신들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했다.

오전 첫 일정으로 순창군노인전문요양원에서 열린 가족초청행사에서는 최 군수는 "어르신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 추진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행사에서는 어르신들의 일상을 담



은 영상 상영, 악기 합주 공연, 모범 입소 어르신에 대한 시상식 등이 진행됐다. 이어 육원요양원에서는 가족 초청행사와 함께 품바 공연이 열려 어르신들과 가족들에게 즐거움을 제공했다.

마지막으로 순창노인복지센터에서는 난타 공연이 마련돼 어르신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순창=박지현 기자

남원시, '찾아가는 어르신 건강지킴이'

'건강특독 건강백세' 시작 경로당 순회 건강상담 진행

남원시보건소(소장 한용재)는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지원하기 위해 '건강특독(Talk Talk), 건강백세!' 사업을 이달 8일부터 오는 11월 28일까지 운영한다.

올해 사업은 남원시 409개소 경로당을 방문해, 어르신들의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을 위한 포괄적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실시한다.

사업 운영은 보건소·지소·진료소 방문간호 인력(45명)이 지역 내 경로당을 방문해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위

한 기초 건강 측정(혈압·혈당·콜레스테롤, 심방세동 선별검사) 및 건강상담을 진행한다.

보건 사업별 전문 인력을 연계해 치매 예방 및 인식개선 교육, 노인 신체 활동과 영양·금연·절주 등 통합 건강 증진 교육, 구강 관리 교육, 한의약을 활용한 중풍 예방 교육, 우울증 관리 등 고령층 대상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폭력, 한파 등 계절별 건강관리 및 유행 감염병 대응 교육, 사전연명의료 제도 안내를 병행해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남원=정하복 기자

남원 금암공원 새단장 마쳐 전망대 루프탑 무인카페 운영

남원의 대표 근린공원인 금암공원이 새 단장을 마치고 시민들을 위한 힐링 공간으로 다시 태어났다.

남원시는 금암공원 정상에 위치한 카페 전망대를 무인카페로 운영하기로 하고 무인커피자판기 등을 설치했으며, 카페명칭도 금암공원에 어울리는 '카페 그람'으로 했다.

무인카페는 제95회 춘향제를 시작으로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카페 그람'은 공원에 위치해 커피나 음료와 함께 휴식과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루프탑에서는 남원 시내 전경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고, 지난 1일 불꽃놀이 온몸으로 감상할 수 있는 명소로 시민들과 관광객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금암공원에는 카페 뿐만 아니라 어린이 생태놀이터와 소나무 숲 데크 산책로, 벽천 분수 등도 있어 자연과 어우러지는 경관은 물론 쾌적한 산책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공원 주변으로 청사초롱과 경관조명을 설치해 야간에도 산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했다.

또한, 이번 춘향제 기간동안에는 '카페 그람'에서 커피와 음료를 무료로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해 남원을 찾는 관광객들과 시민들에게 즐거운 추억과 특별한 혜택을 선사했으며, 6월에는 수국이 만개해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선사할 예정이다. /남원=정하복 기자

순창군, 지역 맞춤형 직업훈련 이달 13일까지 수강생 모집

순창군이 군민의 취·창업 역량 강화를 위해 'Chat GPT & AI 기반 데이터 활용 과정', '병원동맹매니저 1급 과정', '실버두뇌훈련 지도사 자격증 과정' 등 총 3개 직업교육 훈련과정 수강생을 모집한다.

모집 인원은 총 45명이며, 신청 기한은 이달 13일까지다.

이번 교육은 2025년 순창군 직업교육훈련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군민들이 실제 필요로 하는 자격 과정과 고품질 시대에 적합한 교육내용을 반영해 구성됐다.

신청 자격은 순창군에 주소를 둔 군민으로, 교육 수요 후 취업 또는 창업 의사가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신청은 순창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해 관련 서류를 준비한 후, 군청 경제교통과 일자리창출팀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군은 연중 상시 운영 중인 직업교육 훈련비 지원 제도를 통해, 위 과정 외에도 취·창업에 도움이 되는 교육 수강을 원하는 군민에게 1인당 1과목(청소년은 연 2과목) 기준으로 최대 100만 원까지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이번 직업교육은 군민 수요를 반영한 실용적인 맞춤형 과정으로, 실제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군민의 생애주기별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완주군, 만경강 일대 교란식물 생태전문가와 제거활동 돌입

완주군이 토종생물의 생육을 방해하고, 생물 다양성을 침해하는 생태계 교란식물의 확산방지를 위해 퇴치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퇴치사업은 총 사업비 4,000만원(국비 2,000, 도비 1,200, 군비 800)을 투입해 상·하반기로 나눠 사업을 진행한다.

상반기 사업은 이달 31일까지 진행되며, 만경강 일대에 번식 중인 돼지풀, 애기수염, 도깨비가지, 가시박 등 환경부가 지정한 교란식물을 퇴치한다.

특히,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생태전문가를 참여시켜 식별 및 제거 작업 효율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한윤수 자원순환과장은 "우리 고유종의 서식공간 확보와 생물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제거작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완주=김명곤기자

완주군, 책놀이로 치매예방 활성화

노인 책놀이지도사 2급 수료식 책 소재 인지기력 향상 활동 지원

완주군이 치매예방 책놀이 활성화에 나섰다.

군은 최근 '2025 어르신 작은도서관 조성사업' 일환으로 진행된 노인인지활동 책놀이지도사 2급 양성과정 수료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과정은 총 30시간의 기본 교육 및 실습으로 진행됐으며, 지역주민 20명이 수혜 책놀이 지도사 자격을 취득했다.

수료생 20명은 6월 말까지 관내 마

을 경로당 10개소를 직접 방문해 어르신들을 위한 '찾아가는 치매예방 책놀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2인 1조로 편성돼 각 경로당을 주 1회, 총 8주간 방문하며 책을 소재로 한 노래, 율동, 전통 게임 등 다양한 통합 활동을 통해 어르신들의 치매 예방 및 인지기력 향상을 지원한다.

한편, 완주군 어르신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은 도서관과 거리가 먼 마을 경로당 내에 서가, 테이블 등 기자재 및 큰 글자도서 구입,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완주=김명곤기자

장수군,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운영

장수군은 5월 한달간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신고·납부 대상은 '24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이며 다음 달 2일까지 방문 또는 온라인 전자신고를 통해 신고·납부하면 된다.

특히 수입금액부터 세액까지 미리 계산해 안내한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세무서나 지자체 방문 없이 ARS 전화 또는 온라인 전자신고(홈택스, 위택스) 클릭 한번으로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다.

또한 군은 세정 지원으로 수출 기업인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유가족 및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한 납세자에 대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이근동 재무과장은 "앞으로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위해 다양한 납세편의 제도를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세청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납세자의 신고·납부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무주군, 사과묘목 생산기술 교육 농업인 1백여 명 참석

무주군은 지난 8일 무주군농업기술센터 농민의 집에서 '사과 묘목 생산기술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묘목 자체 생산 기반을 다져 농업인 역량 강화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농업인 1백여 명이 참석했다.

우병용 감사(소백산 컨설팅 대표)는 이 자리에서 △사과 묘목의 점목 기술과 △환경 관리 △병해충 예방법 등 고품질 묘목 생산을 위해 알아야 할 핵심 기술을 공유했다.

신상범 무주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고품질 사과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묘목의 품질이 좋아야 한다"면서 "이번 교육이 무주군 농업인들의 사과 묘목에 대한 관심과 품질을 높이는 것은 물론 무주반딧불사과, 나아가 무주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군은 농업·농촌을 이끌어갈 전문 농업인 육성에 매진할 방침으로 '사과 묘목 생산기술 교육' 외에도 연중 시기별 맞춤형 품목 교육과 농업인 실용교육, 농업대학, 신규농업인 현장실습,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기술 교육 등을 추진한다.

/무주=최희호 기자

임실군, 본격 영농철 맞아 벼 육묘 관리 중점 현장 지도

임실군이 5월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건전한 벼 육묘 관리를 위한 중점 현장 관리 지도에 나섰다.

벼농사의 절반은 건강한 모기르기부터 시작하는 만큼 농가별 이앙 시기를 고려한 못자리 설치 및 건전모 생산을 위한 육묘 관리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카디라병, 도열병, 세균성벼알마름병, 이삭누룩병, 깨씨무늬병, 벼잎선충 등 증상으로 전염되는 병해충 예방을 위해 종자소독을 철저히 한 후 30~32℃에서 3일 내외로 상자 쌀기를 하는데 직사광선을 받지 않도록 차광막을 씌워 상하부 온도 차이를 막고 온 피해 발생에 유의해야 한다.

부직포 육묘는 피복 후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흙을 상자 옆에 1~1.5m 정도 간격으로 얹어 고정하고 고랑에 물을 충분히 대주어 모판이 마르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한낮에는 부직포를 열어 환기하고, 야간에는 덮어주는 등 보온 관리를 철저히 해줘야 한다.

특히, 못자리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주는 입고병(모잘록병)은 철저한 온도 관리와 예방 위주의 방제를 실시해야 한다.

임실군농업기술센터 장취균 소장은 "벼농사의 기본이 육묘 과정인 만큼 못자리를 세심하게 관찰하고 큰 입고자로 인한 입고병, 뜰도 등 병해 및 생리장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온도와 습도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임실군, 관광특수 제대로 '대박'

옥정호·팻스타 등 연계 관광객 복적 전북 대표 관광지로 우뚝

올해 임실방문의 해를 맞은 임실군이 이달 초 황금연휴에 주요 관광지마다 수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면서 관광특수를 제대로 누렸다.

이에 따라 10여년 전까지만 해도 관광의 불모지나 다름없었던 임실군은 임실치즈테마파크와 옥정호 출렁다리, 옥정호 출렁다리와 붕어섬생태공원, 오수의견관광지, 성수산, 사선대 등을 중심으로 한 천만 관광객 유치에도 청신호가 켜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군에 따르면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이어진 나흘간의 황금연휴 동안 옥정

호 출렁다리 및 붕어섬 생태공원과 임실치즈테마파크, 오수의견관광지 이 3곳을 찾은 관광객만 14만여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연휴 첫날과 5일 어린이날 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 기간 치러진 오수의견제와 함께하는 임실N팻스타에 8만2000여명이, 어린이날 행사가 열린 임실치즈테마파크에 3만5000여명, 옥정호 출렁다리와 붕어섬 생태공원에 2만 3천여명이 방문하며 연휴 내내 관광객들로 북적였다.

5일 어린이날 축제가 열린 임실치즈테마파크도 연휴 기간 내내 전국 각지에서 온 가족 단위 관광객들로 북적였다.

관광객 증가는 주변 상권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테마파크 내

음식점과 체험, 치즈 유제품 및 농특산물 매출은 총 2억5000만원에 달했다.

또한 대한민국 반려동물의 성지인 임실군에서 열린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오수 의견문화제와 함께하는 임실N팻스타에 역대 가장 많은 반려인과 반려동물이 찾아 큰 성공을 거뒀다.

심 민 군수는 "불과 10여년 전까지만 해도 임실군은 관광의 불모지나 다름없는 작은 농촌지역이었는데 지금은 명실공히 전북을 대표하는 관광지로 전국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며 "5월과 6월에 옥정호 붕어섬생태공원과 치즈테마파크 장미원 등 주요 관광지에 계절꽃이 활짝 피어 더 많은 관광객이 우리 임실군을 찾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무주군, 지방소멸 대응 생활인구 TF팀 구성

5개 분야 19개 팀 실무진 '생활인구 증대' 협력 강화

무주군이 지방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생활인구 TF팀' 운영을 시작했다. 생활인구 TF팀은 최정일 부군수를 단장으로 인구 유입과 문화·체육·관광·행사 등 5개 분야, 19개 팀의 실무진(팀장급)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주민등록인구뿐만 아니라 외국인 등록 인구, 체류 인구를 포함하는 '생활인구 증대'를 목표로 한다.

인구 유입 분야에서는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정책을 개발하고 외부 인구 유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문화·체육 분야에서는 지역 자원을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 발굴과 지역 활성화를 위한 대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관광·행사 분야에서는 계절별·테마별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체험 행사 운영을 통해 관광객 유치에 나서게 된다. 마케팅 분야에서는 지역 내 소비 촉진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특화 먹거리, 기념품 등을 발굴한다.

홍보 분야에서는 지역 브랜드 이미지



구축 및 전략 홍보를 진행하며 홍보 채널을 확대하는 등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무주군 생활인구 TF팀은 분기별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를 통해 생활인구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부서 간 협업 과제도 논의할 예정이다. 5월에는 '1시군·1생활인구 특화사업 공모'에 도전할 사업 발굴에 나설 계획이어서 기대를 더하고 있다.

등록외국인은 2분기 계절근로자 유

입으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체류 인구는 1월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무주군은 등록인구 대비 체류인구 수가 많은 체류인구배수 상위 지역이라는 점을 감안해 앞으로 재방문율과 평균 체류일수, 평균 숙박일수 등 체류인구 특성을 분석해 체류인구 유입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사업 발굴에 더욱 주력할 방침이다.

/무주=최희호 기자

진안군,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사업 전략 점검

진안군은 8일 부군수실에서 주영환 부군수 주재로 '2026~2027년 국가예산 중점관리사업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 4월 22일 개최된 국가예산 추진상황 보고회의 후속 회의로 진안군의 주요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전략을 점검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보고회에는 국·소장이 참석해 총 25개 중점관리사업에 대한 전북도 및 중앙부처 방문 결과를 토대로 추진상황

을 점검하고, 각 사업별 예산 확보 방안

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지적권 산림약용작물 특화산업화 단지 조성, 국도 26호선 도로개량사업, 홍산한방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연장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업 등이 포함됐으며, 해당 사업들은 진안군의 환경 개선과 지역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예정이다.

진안군은 오는 31일까지 정부 부처별 예산편성이 완료되는 만큼, 마지막까지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또한, 국·소·실·과장 등 간부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국가 예산 확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부처 예산편성 이후에도 기획재정부와 국회의 수시로 방문해 국가예산 확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보고회를 주재한 주영환 부군수는 "진안 발전을 위한 건의 단계에서 나아가 실제 사업 시행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전 행정력을 동원해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전길빈 기자

최훈식 장수군수,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 대비

최훈식 장수군수는 다가오는 여름철 자연재난에 철저히 대비하고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7일 재해 우려지역을 직접 방문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최근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난의 발생빈도와 피해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여름철 주요 재난인 태풍과 집중호우로 인한 군민들의 인명 및 재산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이뤄졌다.

점검대상지는 붕괴 위험이 높은 선장 1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현장과 장수천교-양수로 하상도로 인근이다.

최 군수는 해당 지역의 안전관리 계획과 통계 기준을 비롯해 인근 주민의 대피 계획도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위



험 요소를 점검했다.

최훈식 장수군수는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해 단 한 건의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앞으로는 자연재난에 대비

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점검시스템을 마련해 군민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장수군을 조성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장수군수배 전국지구력 승마대회

11일까지 3개 종목 15경기 150여명 선수 마필 100여두 출전

말산업 특구인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은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천천면에 위치한 장수국제승마장에서 '제2회 장수군수배 전국지구력 승마대회'를 개최한다.

전북특별자치도승마협회 주관으로 개최되는 이번 대회는 장애물·지구력·이벤트경기 3개 종목 15경기가 펼쳐지며 초등부부터 일반부까지 다양한 연령의 150여명의 선수와 마필 100여두가 출전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는 각 부문 수

상자들에게 상금과 부상이 주어지며 전국 승마대회 최초로 상금의 70%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참가 선수들과 방문객에게 장수군을 적극 홍보하고 지역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최훈식 군수는 "2회를 맞이한 이번 승마대회로 장수군이 승마 중심지로의 위상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승마대회 유치는 물론 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임실군의회 장종민 의장 등 하가 유적지 방문

임실군의회 장종민 의장과 김정흥 위원장이 지난해에 임실 신평면 가덕리 하가지구를 방문했다.

가덕리 하가 구석기 유적지는 2000년 5월에 발견돼 2006년부터 2011년까지 다섯 차례 조선대학교 박물관 주관으로 발굴 조사가 이루어졌었는데, 문화층의 규모는 10만㎡ 이상으로 추정되며, 2만 7천여 점의 유물이 출토됐다.

임실군의회는 이곳의 문화적 가치를 높이 평가해 집행부에 문화재 전담팀 신설을 촉구하는 등 의회 차원에서 하

가지구 구석기 유적지 발굴, 보존에 힘을 보태고 있다.

김정흥 위원장도 지난 제339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지역 문화유산인 관공지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5분 발언을 하는 등 하가지구를 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해 힘써왔다.

또한, 장종민 의장은 "하가 구석기 유적지가 국가사적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전북 태권도대표 선수단, 진안서 전지훈련

전북자치도 태권도 대표 선수단이 제54회 전국소년체육대회를 앞두고 진안군에서 전지훈련에 돌입했다.

진안군에 따르면 지난 3일 태권도 대표 선수단 52명이 진안 문예체육회관과 공설운동장을 중심으로 9일간의 전지훈련을 시작했다. 청정 자연환경과 쾌적한 훈련 인프라를 갖춘 진안은 선수들의 체력 향상과 경기력 극대화를 위한 최적의 장소로 주목받고 있다. 군은 전지훈련팀에 체육시설 대관료 면제, 체류비 일부 지원, 지역 관광지 입장료 감면, 숙소·식당과의 연계 편

의 제공 등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 숙박업소와 음식점에도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진안이 스포츠 전지훈련의 최적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힘써주시는 정봉운 체육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이번 훈련이 선수들에게 좋은 성과로 이어지고, 진안군이 앞으로 도 꾸준한 스포츠 전지훈련의 중심지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안=전길빈 기자

무주군-전북연구, 정책사업 추진 방안 논의

무주군이 정책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지난 8일에는 무주상상만다실에서 전북연구원과 간담회를 갖고 주요 현안 및 신규 정책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무주군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과제들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황인홍 무주군수와 이남호 전북연구원장을 비롯한 각 분야 전문가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덕유산 산림레포츠 단지 조성, △무주 고용노동인권교육원

건립, △와인산업 클러스터, △국립반려동물센터 유치, △국립자연박물관 건립 등 5개 주요 사업에 대한 정책자문과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오늘 논의한 사업들은 무주군 자연과 산림, 관광자원을 활용해 지역경제성을 확립하고 사회적·문화적·역사적 가치를 높일 것"이라며 "전북연구원과의 지속적인 협력이 사업별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하는데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무주=최희호 기자



무주군 천지가든 & 루시올랜드, 평화요양원에 간식꾸러미 전달

무주군 무주읍 소재 한식당 천지가든과 농업회사법인 루시올랜드가 지난 8일 각각 이웃돕기 성금과 물품을 무주군평화요양원에 지원...

무주군에 따르면 천지가든이 5백만 원의 성금을, 루시올랜드는 자체 생산한 천마 라이스칩과 천마소금빵, 검은깨쿠키 등 5백만 원 상당의 간식꾸러미 2백 세트를 기탁했다.

고부지간으로 알려진 천지가든 박순자 대표와 루시올랜드 강경미 대표는 "앞으로도 어버이날의 선행을 이어가겠다"라고 전했다.

/무주=최희호 기자



익산 응포면 행정복지센터 직원들, 직접 만든 카네이션 브로치 전달

익산시 응포면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지역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응포면은 8일 지역 내 독거노인과 행정복지센터를 찾은 어르신 등 20여 명에게 카네이션 브로치를 달아드렸다.

카네이션 브로치는 응포면 직원들이 휴식시간을 활용해 직접 코바늘과 뜨개질로 정성스럽게 제작한 것으로, 어버이의 가없는 은혜를 되새기고자 마련됐다.

/익산=최준호 기자

익산(썬)맥시간, 아동복지시설에 소떡소떡·치킨 선물

익산시는 (썬)맥시간(대표 정삼모, 오수정)이 가정의 달을 맞아 지역 내 생활시설 아동들을 위해 치킨 68상자·소떡소떡 200개를 기탁했다...

정삼모 대표는 "가정의 달을 맞아 아이들이 좋아하는 간식을 선물하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아동을 위한 지역사회의 든든한 후원자로서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황은규 송화자 부부, 우석학원에 기금 2천만 원 쾌척

학생들과우석학원발전기원

학교법인 우석학원(이사장 서창훈)의 발전을 위해 삼일장학회 황은규 송화자 이사장 부부가 기금 2000만 원을 쾌척했다.

기금 전달식은 지난 7일 전주캠퍼스 대학 본관 11층 법인사무국 회의실에서 열렸으며, 서창훈 우석학원 이사장과 황은규 송화자 이사장 부부, 오석홍(식품영양학과) 교수 등이 참석했다.

황은규 이사장은 완주 삼례 출신으로, 전주고등학교 재학 시절

은사였던 고(故) 서정상 박사(우석대학교 설립자)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인연이 있다. 30대 초반부터 축산업에 종사해 전주축협 이사과 조합장을 역임하며 30여 년간 지역 축산 발전에 헌신해 왔다.

황은규 송화자 이사장 부부는 "올해 우석대학교가 개교 46주년을 맞이한 것을 축하하며, 꽃피어 가는 학생들과 학교법인 우석학원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원하기 위해 기금을 출연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최성민 기자



박근우 조각가, 고향 정음시 빛과 돌의 조화 선보인다

5월 9일부터 1년간, 정음시 생활문화센터 야외 공간이 신태인 출신 박근우 조각가의 독창적인 작품 세계로 물든다.

"문명 속 자연"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특별초대전은 돌의 원초적 물성과 빛의 유연함을 조화시킨 석재 조각 3점을 선보이며 관람객들에게 깊은 사유의 시간을 선사할 예정이다.

이번 전시는 신태인이 낳은 박근우 조각가가 자신의 깊이 있는 예술세계를 고향에서 선보이는 뜻깊은 자리다.

박근우 작가는 돌이 가진 원초적인 물성과 빛이 지닌 유연함을 절묘하게 조화시키며 자신만의 독창적인 조각 세계를 구축해온 예술가다.

전시는 누구나 무료로 관람 가능하며, 생활문화센터 주변 야외 공간의 특성상 상시 개방된다.

/정음=김정민 기자

남원시, 어린이날 맞아 '모범 어린이 표창' 수여

학교 밖 청소년 이지원 선정

남원시는 제103회 어린이날을 맞아, 지난 5일 기념식에서 책임 있는 자세와 바람직한 태도로 모범이 된 어린이들을 표창했다.

특히, 남원시의회 의장상을 수상한 이지원 학생은 남원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성실하게 참여해, 또래 청소년들에게 긍정적인 본보기가 되어 왔다.

정일신 센터장은 "모범 어린이로

선정된 이지원 청소년에게 축하의 말을 전하며, 이번 수상이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지역사회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이 더욱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남원시 의회 김영태 의장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바른 인성과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모두가 따뜻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모범적인 학교 밖 청소년들을 격려하고 응원하여, 따뜻하고 건강한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장수골프리조트, 장수군에 '1004박스' 기탁

장수골프리조트(대표 이용규)는 8일 장수군 취약계층을 위해 '1004박스(생필품 꾸러미)' 200개 (1,000만원 상당)를 기탁했다.

기부물품 '1004박스'는 사골곰탕 등 식료품과 세제, 샴푸를 포함한 각종 생필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내 취약계층 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

장수골프리조트는 장수군 대표 레저시설로 모기업 (썬)타임스의 주관으로 지난 2021년부터 '행복나

눔프로젝트'를 통해 지역사회와의 상생과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매년 1004박스 기탁 및 이웃돕기 성금 전달, 초등학교 골프교실 후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이용규 대표는 "장수군민을 위해 꾸준한 나눔 활동을 펼쳐며 더 많은 사랑을 지역에 환원하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완주생문동, 어버이날 맞아 복지시설 공연

(사)완주군생활문화예술동호회 네트워크(이하 완주생문동)가 '2025 완주로(路) 찾아가는 버스킹'을 열며 호응을 얻고 있다.

찾아가는 버스킹은 자발적으로 참여한 생활문화예술동호회 소속 동호회 4개 팀이 사회복지시설과 경로당 등 문화 접근이 어려운 이들을 직접 찾아가 다채로운 공연을 펼치는 사업이다.

8일에는 어버이날을 맞아 삼례 주간보호센터와 성심노스홈 노인

복지 시설을 찾아가 어르신들과 취약계층에게 정서적 위로와 즐거움을 선사하는 시간을 보냈다. 이 자리에는 유희태 완주군수도 참여하며 따뜻한 인사를 전했다.

유 군수는 "생활문화예술이 군민의 삶 가까이에서 활력을 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문화 소외 없는 완주를 만들기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완주=김명곤 기자



김선우 씨, 정음시에 고향사랑기부금 500만 원 기탁

고향 정음의 발전을 응원하는 따뜻한 마음이 전달돼 지역사회에 훈훈함을 더하고 있다. 지난 7일, 정음시 수성동 구미마을 김판득 통장의 자녀 김선우 씨가 정음시에 고향사랑기부금 500만원을 기탁해 귀감이 되고 있다.

이날 시청에서 열린 기탁식에는 바쁜 일정으로 직접 참석하지 못한 김선우 씨를 대신해 부친인 김판득 통장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김 통장은 아들의 고향 사랑의 뜻을 전하며 기탁의 의미를 더했다.

/정음=김정민 기자

■ [부음]

김종철 전 도의원 빙모상

빈소 : 전주삼성장례문화원 VIP실 202호
입관 : 2025년 5월 9일 11시 00분
발인 : 2025년 5월 10일 9시 00분
장지 : 전주승화원

Infographic titled '미세먼지 예방 하고 안전한 봄 지내요' (Prevent fine dust and enjoy a safe spring). It features four numbered steps: 1. 손씻기 (Hand washing), 2. 물을 많이 마시기 (Drink plenty of water), 3. 외출 시 마스크 착용 (Wear a mask when going out), and 4. 실내공기 관리 (Indoor air management). The background shows a family and a person wearing a mask.

〈一事一言〉



성장률 마이너스 최악 위기, 한국 경제 대수술 기회로(1)

홍중학
전 국회의원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은 미국이 100년 전 사용했던 정책이다. 1920년대 압도적 지지를 받는 미국 공화당 정부는 친기업, 부자 감세, 관세 인상, 고립주의를 기치로 하는 정책을 폈다. 현재 상·하원을 미국 공화당이 장악한 가운데 친기업, 부자 감세, 관세 인상, 미국우선주의를 펴는 트럼프 정부의 모습과 판박이처럼 보인다.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자본주의의 부작용에 직면한 미국에서는 개혁의 바람이 불었고, 이를 미국 역사에서는 '진보시대(Progressive Era)'라 부른다. 진보시대는 민주당의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시절 절정에 달했다. 이 시기 연방준비제도(미국 중앙은행)가 창설되고, 반독점법 강화, 노동자 권의 보호를 위한 각종 법률이 제정됐다. 1차 세계대전 참전과 승리, 민족자결주의 선언 등도 이 시기의 특징이다.

그러나 개혁의 성과를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반면 피로감은 쌓이고, 전쟁 후유증과 여전히 정치 부패에 대한 실망이 겹치면서 윌슨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은 급락했다. 윌슨이 주창한 국제연맹은 상원에서 부결됐고, 윌슨 자신도 정책 홍보 순회 중 뇌졸중으로 쓰러졌다. 이후 공화당 후보의 당선은 확실시됐다.

당시 공화당 지도부는 최악체로 평가받던 오하이오주 연방 상원의원 워렌 하딩을 후보로 지명했고, 하딩은 '정상으로의 복귀(Return to Normalcy)'를 내세

워 무난히 당선되었으나 측근들의 부패 스캔들에 괴로워하다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병사했다. 이후에도 여전히 강력한 지지를 바탕으로 클리지, 후버로 이어지는 12년 간의 공화당 정권은 친기업, 감세, 고율 관세 정책을 펼쳤다. 이 시기 미국은 전기 보급, 라디오 발명, 자동차 대량생산 등 기술 발전에 힘입어 '광란의 20년대(Roaring Twenties)'라는 경제적 호황을 누렸다.

고속 성장과 규제 완화는 부동산과 주식 시장에 거품을 불러왔고, 1929년 10월 '검은 목요일'의 주식시장 붕괴로 대공황이 시작됐다. 농민 보호 명분으로 관세를 인상하려 했으나, 실제로는 기업들의 강력한 로비로 관세 인상 품목이 대폭 확대된 스무트-홀리 관세법이 통과됐다. 1000여 명의 경제학자들이 반대 성명을 냈을 정도로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컸지만, 후버 대통령은 마지못해 법안에 서명했다.

곧 유럽 각국이 보복 관세로 맞섰고, 세계 교역량이 3분의 2까지 줄었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무역이 위축되어 전 세계 경제는 극심한 피해를 겪게 되고, 이로 인해 대공황은 전후후무한 경기침체로 이어졌다. 금본위제도를 폐지하고 선택적 관세로 대응한 스웨덴, 대영제국 내 관세 인하로 무역 감소를 막은 영국 등은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었다. 반면, 1차 세계대전 배상금 문제로 경제가 파탄난 독일은 이중고를 겪으며 나치가 부상했고, 군비 확장으로

경제난을 타개하려다 2차 세계대전의 원인이 됐다.

대공황의 교훈은 경제학자뿐 아니라 정치인들에게도 깊이 남았다. 1920년대 자유방임주의 정책을 본 따 친기업·규제완화·감세를 내세웠던 레이건 정부조차 관세 지렛대로 삼아 상대국의 비관세 장벽을 낮추고 미국 내 투자를 유도하려 한다. 하지만 이 정책이 성공하기 어려운 이유로 세 가지가 들 수 있다.

첫째,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글로벌 공급망이 극도로 분절화됐다. 예컨대 애플의 휴대폰은 중국에서 조립하지만, 부품은 세계 각지에서 공급된다. 관세는 이런 효율적 공급망을 교란해 세계 교역을 위축시킬 것이며 기업 투자를 저해할 것이다. 특히 예측 불가능한 정책 변화는 장기적 투자 결정을 어렵게 만든다.

둘째, 트럼프 정부가 내세운 제조업 부흥은 단기간에 달성할 수 없다. 미국은 이미 생산기반이 상당 부분 해외로 이전되어 제조업 공장이 없는 공동화 현상이 오래 지속되어 왔다. 처음부터 제조업을 다시 시작해야 하는 미국 기업의 입장에서 관세 정책이 장기적

으로 유지된다는 보장 없는 기업 투자가 쉽지 않다.

셋째, 제조업의 핵심인 기능인력이 부족하다. 제조업 공동화 현상은 기능인력 양성을 불가능하게 했으며, 서비스업의 높은 임금에 대응하는 제조업 인력을 양성하는 것은 불가능해졌다. 이는 해외 기업들의 미국 투자도 지속가능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 역시 정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투자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

고속 성장과 규제 완화는 부동산과 주식 시장에 거품을 불러왔고, 1929년 10월 '검은 목요일'의 주식시장 붕괴로 대공황이 시작됐다. 농민 보호 명분으로 관세를 인상하려 했으나, 실제로는 기업들의 강력한 로비로 관세 인상 품목이 대폭 확대된 스무트-홀리 관세법이 통과됐다. 1000여 명의 경제학자들이 반대 성명을 냈을 정도로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컸지만, 후버 대통령은 마지못해 법안에 서명했다. (계속)

본 칼럼은 시민언론 만들레에 게재된 내용임을 밝힙니다.

외부원고 및 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설

이재명 후보의 전북 행보, 균형발전의 새 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전북 지역을 잇따라 찾아 지역 민심을 청취하고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그의 전북 방문은 단순한 유세 일정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농촌 기반의 삶을 존중하고 K-콘텐츠를 비롯한 문화산업의 가능성까지 포괄하며 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구체적으로 풀어낸 점에서 주목을 끌었다.

이 후보는 이번 방문에서 진안의 인삼상가와 시장을 찾아 농업의 현실을 체감하고 농촌 기본소득 도입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농어촌 인구의 고령화와 소득 불균형, 수도권과 지역 대학 간의 교육 격차 등 구조적 문제를 직시한 그의 발언은 현장 기반의 문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농업·농촌을 지키는 것은 국가 안보와도 직결된다"는 언급은 농촌을 단지 생산기지로 보지 않고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의 중요한 축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전주 한옥마을에서 이 후보는 K-콘텐츠의 세계적 경쟁력을 강조하며 문화산업을 국민 일자리 산업으로 정의했다. 콘텐츠 산업은 한국이 가진 문화 자산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을 선도할 잠재력을 갖고 있다. 하지만 시장의 불균형, 자본력 부족, 글로벌 플랫폼 종속 등 현실적인 과제도 분명하다. 이 후보가 언급한 '도청 플랫폼 육성'은 한국형 콘텐츠 생태계를 지속 가능하게 만들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전주는 전통문화의 분향이자 창작 인프라가 집약된 도시로, 이 후보의 문화 중심지 육성 구상에 있어 상징성과 실효성을 겸비한 선택이다.

이 후보는 이어 익산에서 "국가가 고령층의 안정된 삶을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이는 복지를 사회적 책임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반영된 것이다. 고령화는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특히 지방은 그 충격이 크다. 지역 공동체의 붕괴를 막고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이 필수적이다.

이 후보의 이번 전북 방문은 수도권 중심의 정치 문법에서 벗어나 현장과 지역, 그리고 사람을 중심에 둔 정책 구상을 실현하려는 의지를 보여준 사례다. "수도권과 힘센 자에게만 물리는 구조를 깨야 한다"는 발언은 단순한 레토릭이 아니라 그가 바라보는 정치의 방향성과 국가 비전의 축을 드러낸다. 특히 전북처럼 인구 감소와 산업 침체, 문화 인프라 부족 등 삼중고를 겪고 있는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은 지방소멸을 막고 진정한 의미의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핵심 전략이 될 수 있다.

더욱이 서울고법의 과거한송심 연기와 맞물려 이번 일정은 이 후보에게 정치적 부담을 덜고 본격적인 민생 행보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지역 순회가 단발성 퍼포먼스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정책과 예산, 입법으로 이어지는 실천적 행보가 되어야 한다. 정치인의 발걸음이 잦은 계절이다. 그러나 그 발걸음이 지역 주민의 삶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그들과 함께 미래를 그리는 시작점이 되기를 바란다. 이재명 후보의 전북 행보가 그러한 모범이 될 수 있을지, 유권자의 날카로운 시선이 그를 지켜보고 있다.

금요시선

아름다운 곳 / 문정희

봄이라고 해서 사실은 푸르고 생생한 새로 난 것 한 가지도 없다. 거적이 돌아왔다 어디인가 깊고 먼 곳을 다녀온 모두가 낯익은 작년 것들이다. 창백한 고향나무에도 일제히 눈필 같은 벚꽃들이 피었다. 우리의 날마다. 누구의 손이 쓰다듬었을까. 작고 슬픈 밭술에다. 저 가느다란 풀잎에. 짙을 씻어 행구고 있는 사이. 죽어서 땅에 떨어진. 다시 봄이 될까. 나도 그곳에. 한 번 다녀오고 싶다.

시인 약력 : 1947년 전남 보성군 출생. 동국대 국어국문학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했다. 서울여대 대학원에서 문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1969년 '월간문학' 신인상에 당선되어 문단에 등단했다. 시집으로 '문정희 시집', '새매', '짚레', '하늘보다 먼 곳에 매인 그네', 수필집 '지상에 머무는 동안' 등을 출간했다. 동국대 문예창작학과 겸임 교수로 재직했다. '공초문학상' '이용악문학상' '목월문학상' '월간문학 신인상' 등을 수상했다. 국립한글문화원 관장과 제40대 한국시인협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독자광장

기후변화 대응 전략: 내재해성 벼 품종 개발



기후변화로 인한 태풍과 홍수는 전 세계 농업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외 연구자들은 내재해성 벼 품종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전통 육종 방법과 분자 유전 기술 및 디지털 육종 기술을 접목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태풍 저항성 벼는 강한 바람에도 쓰러지지 않는 구조적 특징을 가지며, 홍수 저항성 벼는 침수 환경에서도 생존할 수 있도록 개량되고 있다.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도 내재해성 벼 품종 연구를 확대하고 있다.

내재해성 벼 품종은 일반 품종과 비교해 생리적, 유전적 차별성



을 지닌다. 태풍에 강한 벼는 키가 작고 줄기가 단단하며, 뿌리 발달이 뛰어나 강풍에도 쉽게 쓰러지지 않는다.

홍수 저항성 벼는 침수 시에도 산소 공급이 원활하도록 유전적으로 개량되었으며, 일부 품종은 부력을 조절해 물 위로 떠오를 수 있다.

이러한 품종들은 특히 저지대

구가 진행 중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국제미작연구소(IRRI)에서 개발한 '스바(Sub1)' 품종은 14일 동안 물에 잠겨도 생존이 가능하다.

이 품종은 동남아시아에서 널리 보급 중이며, 우리나라도 전통 육종, 디지털 육종 기술 및 스마트 농업기술을 접목한 연구를 확대하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더욱 빈번해지는 상황에서 태풍과 홍수에 강한 벼 품종 개발은 식량 안보를 위한 필수 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다.

지속적인 연구와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미래 농업은 기후 변화 속에서도 안정적인 식량 공급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지방농업연구소 이인석



안국사 극락전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

- 분류 - 유적건조물, 불교, 불전

- 지정일 - 1974년 9월 27일

- 시대 - 조선시대

- 소재지 - 무주군 적상면 산성로 1050 (괴곡리)

문화재 열전

JBT 전북타임스 Jeonbuk Times 2011년 10월01일創刊/등록번호 전북가-00022(안건) 우)5499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www.jeonbuktimes.co.kr

발행, 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정재근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시 010-9645-4113	군산지국 010-8641-7942	무주지국 010-6411-0835
부안지국 010-7247-3947	익산시 010-9678-4271	남원지국 010-2285-3987
임실지국 010-8642-6502	완주지국 010-2433-1721	고창지국 010-2258-3734
진안지국 010-2433-1721	정읍지국 010-8626-6049	완주지국 010-3872-0308
팔복지국 010-3015-4791	김제지국 010-4572-6112	장수지국 010-8626-6049
송천지국 010-5242-3694	정읍지국 010-2800-2934	순창지국 010-5312-7293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익산 '책을 품은 공원'...자연 속에서 책을 읽다

익산시가 시민의 일상 가까이에서 책과 자연을 함께 즐길 수 있는 테마형 도서관 조성에 본격 나섰다. 우선 지난 2월 임시 운영을 시작한 '수도산그림책숲도서관'에 이어, 지난달 23일 '모인여행숲도서관'이 정식 개관하며 시민과의 만남을 시작했다. 공원 속 테마형 도서관 조성 사업은 앞으로 책과 사색, 휴식을 연결하는 새로운 문화 플랫폼으로 자리잡아 시민 일상에 한층 더 여유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책 속으로 풍덩,수도산그림책숲도서관

수도산공원에 조성된 '수도산그림책숲도서관'은 그림책을 테마로한다.

작은 규모지만 아늑하고 몰입감 높은 공간을 자랑한다. 팝업북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그림책 2,000여 권을 비치하고 있다.

어린이들은 '독서통장' 시스템으로 스

카메라 대여 서비스와 '여행 공유룸'을 통해 여행 추억을 공유하고 계획을 세울 수도 있다.

◆일상 속 자연과 책을 잇는 다양한 프로그램

화창한 봄날에 아이들과 함께 가족 단위의 여가를 고민하고 있다면 공원 속에서 도서관을 경험하는 북크닉에 참여



해덕숲도서관 <사진=익산시>

수도산그림책·모인여행숲도서관 개관 북크닉·해덕도서관 등 책 프로그램 커뮤니티 공간도 조성 소통의장 기대

스로 독서 기록을 관리할 수 있다.

또한 홀로그램 콘텐츠와 실감형 증강 현실(AR) 체험존을 운영해, 책을 오감으로 체험할 수 있는 신개념 도서관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시는 그림책을 더욱 친숙하게 접하고,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여행을 떠나는 마음으로,모인여행숲도서관

모인여행숲도서관은 '여행'을 주제로 한 테마형 도서관이다. 모인공원 안에 약 397㎡ 규모의 단독 건물로 조성됐으며, 부드러운 곡선형 외관이 특징이다. 특히 기차형 서가, 세계지도 서가 등 독특한 내부 공간이 눈길을 끈다.

홀로그램 기술을 활용한 '불명존'을 설치해, 바쁜 일상 속 잠시 멈춰 쉬어가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도서관에는 약 1,800권의 여행 서적이 비치돼 있으며, 시민들은 '플라로이드

보는 건 어렵까.

시민들이 가족과 함께 공원 속에서 책을 즐길 수 있도록 '북크닉'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북크닉은 '책(Book)'과 '피크닉(Picnic)'을 결합한 프로그램으로, 상반기에는 5월까지 일정이 운영된다.

익산시 통합도서관 누리집에서 사전 신청 후 영등·유천도서관 방문 시 북크닉 꾸러미(뚝자리, 그림책, 만들기 키트 등)를 받을 수 있다.

해덕에 누워 자연과 교감하고 휴식과 독서를 즐기는 해덕도서관은 올 하반기 모현공원에서 운영을 앞두고 있다.

지난해 배산공원 편백나무숲에서 운영된 해덕숲도서관은 자연과 함께하는 새로운 도서관 경험으로 호평을 받은 바 있다.

내년에는 소라공원에 '북카페형 숲속 도서관'도 새롭게 들어설 계획이다.

소라공원 숲속도서관은 산책 후 가볍게 들러 커피와 책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돼, 이웃 간 소



수도산그림책숲도서관



북크닉

통의 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시는 시민들의 일상 속에 스며드는 다양한 도서관 서비스를 꾸준히 확충해,

누구나 쉽게 책과 만나고 풍성한 독서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힘을 기울일 계획이다.

김영희 익산시 복지교육국장은 "공원

속 테마형 도서관과 더불어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을 확대할 것"이라며 "시민들이 책을 더욱 친근하게 만나고, 삶 속

에서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발효가 예술이 되는 곳, 오감이 즐거워지는 발효테마파크

순창군